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입학안내 문의 02-2173-2500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s.hufs.ac.kr>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HUFS 2023 ADMISSION GUIDE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2023학년도 학생부전형가이드북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 학년도 학생부전형가이드북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ADMISSION GUIDE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전형가이드북

CONTENTS

I . 학교장추천전형	
1. 전형 안내	02
2. 전형 결과	03
3. 전형 Q&A	07
II . 학생부종합전형	
1. 전형 안내	09
2. 전형 결과	12
3. 전형 Q&A	20
FAQ1. 서류평가	
1. 평가요소별 학교생활기록부 파헤치기	23
2. 서류형, 이렇게 합격했어요!	27
FAQ2. 면접평가	
1. 면접 안내사항	32
2. 면접형, 이렇게 합격했어요!	34
3. 면접 Q&A	48
4. 면접 Final Check	50
FAQ3. HUFs 대학생활	
1. 꿈을 향한 계속된 도전, 이중전공	51
2. 학사제도	56
3. 취업현황	57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자세한 입학정보
및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세요!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학처 유튜브
바로가기

I. 학교장추천전형

1. 전형 안내

가. 전형방법 : 학생부 교과 100%

나. 전형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다. 추천인원 : 고교별 20명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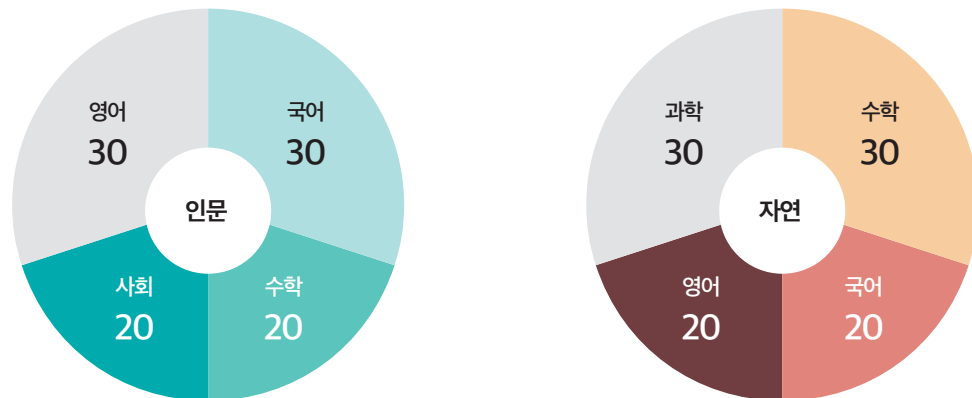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캠퍼스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서울	전 모집단위 (KFL 학부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글로벌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 3 이내,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 3 이내, 한국사 영역 응시

마.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

모집단위	반영교과	반영 과목수	반영학기	반영방법	반영 지표
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해당 교과 전과목	3학년 1학기까지 (단,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등급환산점수 또는 원점수환산점수 중 상위값 적용	등급, 원점수, 이수단위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바. 교과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교과별 반영비율(%)					합계	학년별 비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인문	30	20	30	20	-	100	없음
자연	20	30	20	-	30	100	

※ 학년별 비율은 없으며, 반영교과 내 전 과목 반영

※ 등급, 원점수, 이수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과목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진로선택과목 미반영)

※ 사회 : 한국사, 역사, 도덕 포함

사. 등급별 환산점수 및 반영교과별 원점수 대비 환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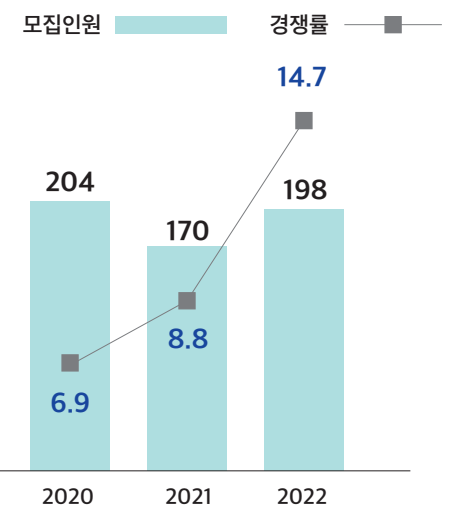
등급	환산점수	반영교과별 원점수		환산점수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1	300	90점 이상	90점 이상	300
2	288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90점 미만	288
3	267	80점 이상 - 8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267
4	231	75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231
5	180	70점 이상 - 75점 미만	50점 이상 - 60점 미만	180
6	120	60점 이상 - 70점 미만	40점 이상 - 50점 미만	120
7	69	50점 이상 - 60점 미만	30점 이상 - 40점 미만	69
8	33	40점 이상 - 50점 미만	20점 이상 - 30점 미만	33
9	0	40점 미만	20점 미만	0

2. 전형결과

가. 최근 3개년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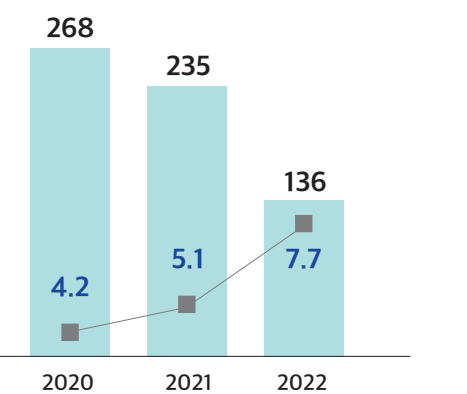
서울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인원	204	170	198
경쟁률	6.9	8.8	14.7
총원율(%)	206.9	238.2	1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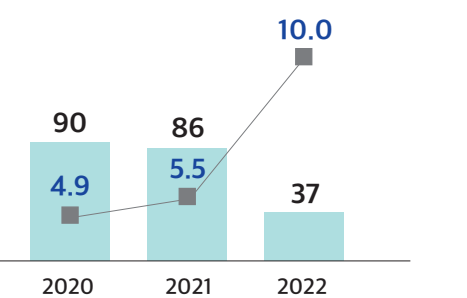
글로벌(인문)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인원	268	235	136
경쟁률	4.2	5.1	7.7
총원율(%)	117.2	178.3	216.2



글로벌(자연)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인원	90	86	37
경쟁률	4.9	5.5	10.0
총원율(%)	210.0	239.6	216.2



나. 학교장추천전형 지원현황

■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경쟁률		실질경쟁률*		총원율(%)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영 어	ELLT학과		8.6	12.9	5.3	7.5	233.3	62.5
	영미문학·문화학과		6.3	11.3	4.7	7.3	233.3	112.5
	EICC학과		10.0	11.3	6.0	7.5	160.0	266.7
서 양 어	프랑스어학부		8.4	13.1	4.7	6.6	285.7	150.0
	독일어과		8.3	12.1	4.3	6.5	187.5	161.5
	노어과		10.6	14.2	5.0	6.4	180.0	100.0
	스페인어과		7.1	12.0	4.7	6.8	255.6	185.7
	이탈리아어과		5.6	12.7	1.7	4.3	66.7	66.7
	포르투갈어과		7.6	13.3	4.0	8.7	66.7	233.3
	네덜란드어과		9.0	14.0	2.7	6.3	66.7	0.0
	스칸디나비아어과		7.0	12.0	1.7	8.3	33.3	66.7
아 시 아 언 어 문 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5.6	11.3	1.0	4.3	0.0	100.0
	아랍어과		6.8	11.0	4.6	6.2	260.0	40.0
	태국어과		6.0	14.7	1.3	3.7	0.0	66.7
	베트남어과		12.0	11.8	4.0	4.8	180.0	180.0
	인도어과		6.0	12.3	1.0	4.7	0.0	100.0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13.0	11.7	5.0	4.7	33.3	100.0
	페르시아어·이란학과		20.6	14.3	5.3	6.3	166.7	66.7
	몽골어과		9.3	17.0	5.3	5.0	100.0	33.3
중 국 학	중국언어문화학부		6.2	9.6	3.0	4.6	160.0	42.9
	중국외교통상학부		6.2	14.2	4.0	8.0	220.0	183.3
일 본 학	일본언어문화학부		6.0	9.6	4.2	4.4	120.0	200.0
	융합일본지역학부		9.4	11.3	4.6	6.1	142.9	85.7
사 회 과 학	정치외교학과		9.8	16.8	7.2	10.0	420.0	240.0
	행정학과		9.2	17.2	4.8	10.2	280.0	36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9.0	27.5	4.0	14.3	233.3	250.0
상 경	국제통상학과		9.8	14.0	7.0	9.4	360.0	200.0
	경제학부		12.5	18.3	10.1	9.4	514.3	171.4
경영	경영학부		10.6	26.6	7.2	15.1	523.1	207.1
사 범	영어교육과		6.5	23.8	4.8	12.8	383.3	425.0
	한국어교육과		7.0	21.0	2.0	13.3	333.3	400.0
	외국어 교육 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7.6	11.7	4.7	2.3	66.7	66.7
		독일어교육전공	9.0	17.7	4.7	8.0	300.0	300.0
		중국어교육전공	12.0	9.7	2.7	1.3	66.7	33.3
국제학부			10.3	13.8	7.3	8.0	400.0	225.0
Language&Diplomacy학부			-	14.3	-	8.3	-	75.0
Language&Trade학부			-	12.0	-	7.3	-	33.3
서울캠퍼스 소개			8.8	14.7	4.8	7.7	238.2	158.1

※ 실질경쟁률 : 2022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인원을 제외한 경쟁률

■ 글로벌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경쟁률		실질경쟁률*		총원율(%)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인문	철학과		4.2	6.3	-	-	137.5	185.7
	사학과		3.7	8.0	-	-	125.0	285.7
	언어인지과학과		4.0	7.0	-	-	200.0	342.9
통번역	영어통번역학부	모집중단	4.0	7.7	-	-	171.4	233.3
	독일어통번역학과		4.0	7.3	-	-	225.0	250.0
	스페인어통번역학과		4.4	7.3	-	-	240.0	142.9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7	5.5	-	-	25.0	300.0
	중국어통번역학과	모집중단	4.4	9.7	-	-	288.9	166.7
	일본어통번역학과	모집중단	3.7	7.0	-	-	75.0	200.0
	태국어통번역학과	모집중단	3.0	3.8	-	-	116.7	225.0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6.1	5.0	-	-	266.7	200.0
	동유럽학	폴란드어과		8.3	6.3	-	-	416.7
루마니아어과		5.1	7.3	-	-	100.0	250.0	
체코·슬로바키아어과		6.0	8.3	-	-	166.7	75.0	
헝가리어과		7.3	7.8	-	-	266.7	100.0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6.3	6.0	-	-	233.3	75.0	
우크라이나어과		3.6	3.7	-	-	0.0	66.7	
국제지역		프랑스학과	모집중단	5.4	7.7	-	-	266.7
	브라질학과	모집중단	17.1	6.4	-	-	137.5	260.0
	그리스·불가리아학과		8.6	5.3	-	-	125.0	100.0
	인도학과	모집중단	4.5	5.0	-	-	150.0	166.7
	중앙아시아학과		5.0	9.3	-	-	175.0	50.0
	아프리카학부		4.7	5.3	-	-	150.0	316.7
	러시아학과	모집중단	4.2	6.6	-	-	140.0	260.0
	한국학과		3.6	6.3	-	-	160.0	200.0
경상	GBT학부		3.6	11.7	-	-	146.7	371.4
	국제금융학과		4.2	10.0	-	-	120.0	333.3
융합인재	융합인재학부		4.0	11.2	-	-	175.0	310.0
글로벌스포츠포산업학부			5.0	22.0	-	-	200.0	300.0
글로벌자유전공학부(인문)			신설	-	-	-	-	-
자연과학	수학과		4.2	7.3	-	-	137.5	66.7
	통계학과		4.5	10.0	-	-	112.5	233.3
	전자물리학과		4.7	8.0	-	-	250.0	200.0
	환경학과		5.0	10.5	-	-	170.0	350.0
	생명공학과		5.7	10.0	-	-	290.0	275.0
	화학과		6.9	8.5	-	-	350.0	0.0
공과	컴퓨터공학부		6.3	13.0	-	-	254.5	200.0
	정보통신공학과		4.8	10.3	-	-	80.0	400.0
	전자공학과		6.8	13.0	-	-	420.0	333.3
	산업경영공학과		5.6	9.0	-	-	240.0	233.3
바이오메디컬공학부			6.1	10.0	-	-	333.3	100.0
글로벌자유전공학부(자연)			신설	-	-	-	-	-
글로벌캠퍼스 소개			5.2	8.2	-	-	194.7	216.2

※ 실질경쟁률 : 2022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설정

다. 모집단위별 경쟁률

서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7.5:1
	경영학부	26.6:1
	영어교육과	23.8:1
	한국어교육과	21.0:1
	경제학부	18.3:1
하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프랑스어교육전공	11.7:1
	영미문학·문화학과/ EICC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융합일본지역학부	11.3:1
	아랍어과	11.0:1
	중국어교육전공	9.7:1
	중국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학부	9.6:1

글로벌(인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글로벌스포츠평산학부	22.0:1
	GBT학부	11.7:1
	융합인재학부	11.2:1
	국제금융학과	10.0:1
	중앙아시아학과	9.3:1
하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6.0:1
	이탈리아통번역학과/ 아프리카학부	5.5:1
	그리스·불가리아학과	5.3:1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5.0:1
	우크라이나어과	3.7:1

※2023학년도 모집중단 학과 제외

글로벌(자연)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과	13.0:1
	환경학과	10.5:1
	정보통신공학과	10.3:1
하위	화학과	8.5:1
	전자물리학과	8.0:1
	수학과	7.3:1

3. 전형 Q&A



전년도(2022학년도)와
비교하여 학교장추천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전형방법이 ‘교과 90% + 비교과(졸결, 봉사) 10%’에서 ‘교과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글로벌캠퍼스 전 모집단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교과성적 산출 시 교과목
반영지표로 원점수를
도입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높은 내신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등급과 함께 원점수를 고려한다면 더 다양한 지역 및 고교의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선택과목을 교과성적
산출 시 반영하나요?

성적 산출 시 등급 및 원점수를 활용하므로 성취도평가로 표시되는 진로선택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과성적 산출 시 학년별
반영비율이 있나요?

학년별 반영비율은 없으며 고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나요?

캠퍼스 및 계열 구분 없이 교교 당 20명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4개 영역 모두 응시해야 하나요?

수능영역 중 일부 영역만 응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졸업 기준)로
전학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국어, 수학, 영어, 사회(또는 과학)교과에서 교과별 한 과목 이상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2022학년도)
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은 얼마나 되나요?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자의 약 60% 정도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수능최저 학력기준 충족인원	충족 비율 (%)
	모집단위	내용				
서울	전 모집단위 (KFL 학부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영역 4등급 이내	198	2,910	1,732	59.5



학교장추천전형 충원율은
높은 편인가요?

학교장추천전형의 충원율은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과 비교해 볼 때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작년 기준 캠퍼스 통틀어 서울캠퍼스 영어교육과가 425%로
충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캠퍼스 및 계열별 충원율을 보면 서울캠퍼스 평균
158%, 글로벌캠퍼스 인문계열, 자연계열 각각 평균 21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장추천전형을 지원할 때,
전년도(2022학년도)
입시결과를 보고 지원하면
될까요?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시 우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전년도 합격선과 경쟁률 및 충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수시 전형과 비교해볼 때 학교장추천전형은
상대적으로 충원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추천방식은 어떠한가요?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중 선(先) 지원하고,
고교 담당교사가 추천서 시스템에 후(後)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추천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II. 학생부종합전형

1. 전형 안내

가. 서류평가

1) 전형자료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보고서)

2) 전형방법 : 3인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처리된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탐구역량, 계열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네 가지
측면에서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

3)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평가지표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학업성취도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탐구활동	·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 지원 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지원 계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 계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	· 지원 계열 관련 교과관련활동(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등)이 있는가? · 지원 계열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이 있는가? · 지원 계열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협업능력	·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눔과 배려	·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 하고자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소통능력	·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경험이 나타나는가?
	도덕성	·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 규칙이나 규정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성실성	·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 관심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자기주도성	·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가? ·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 ·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경험의 다양성	· 자율, 동아리, 봉사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성취한 적이 있는가?
	리더십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주도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발전가능성		

나. 면접평가

1) 전형자료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보고서)

2)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열적합성, 논리적사고력,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관 2인이 지원자 1인을 면접하는 2:1방식으로, 10분 내외로 진행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블라인드 면접 실시

외국어 사용이 불가하며, 면접의 전 과정은 한국어로 진행

3)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면접고사 당일 교복 착용은 금지함
	면접고사실 입실 시 수험표 소지 및 패용을 금지함(면접대기실에서는 허용)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답변, 공인어학성적이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과 수상실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답변은 사용 불가함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에 따른 임의의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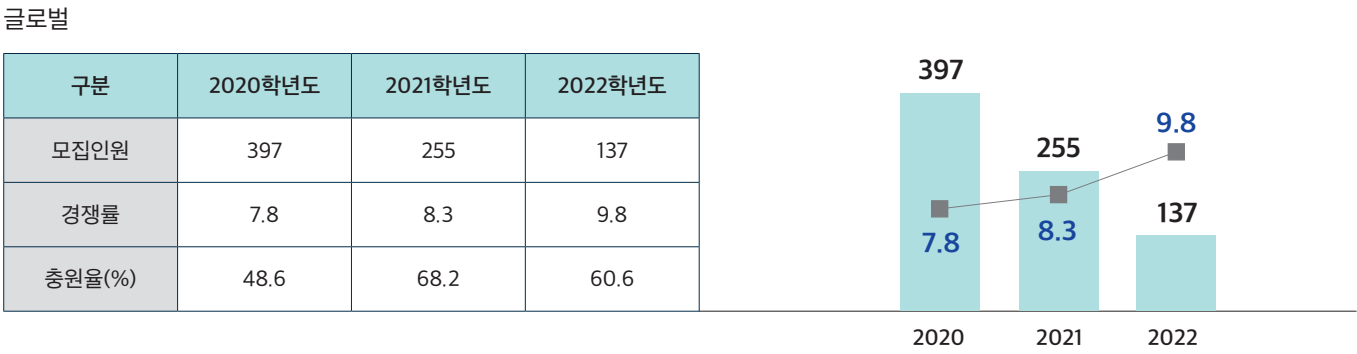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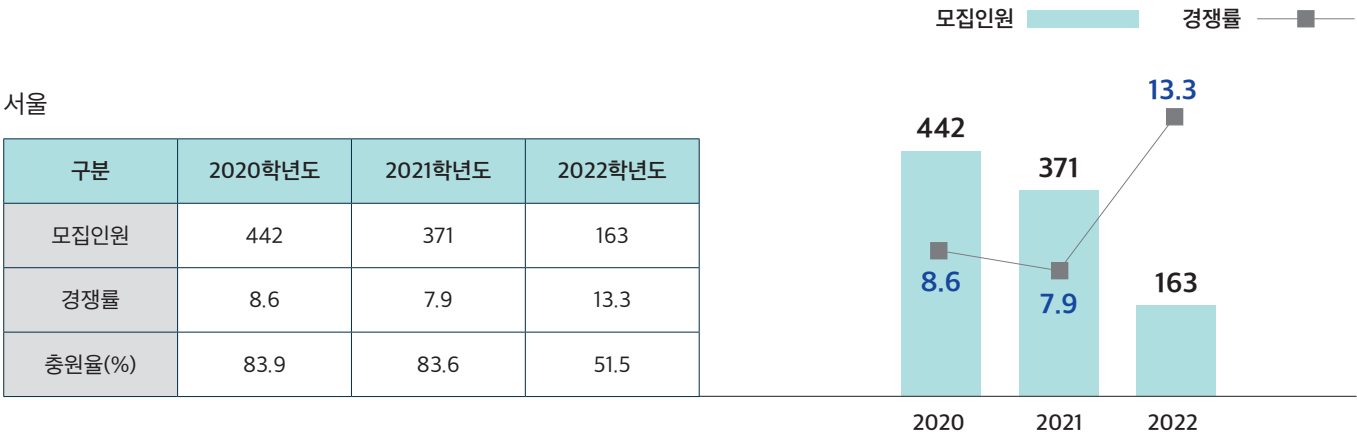
※ 면접고사는 지원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10월 30일(일) 서울캠퍼스에서 실시함

4)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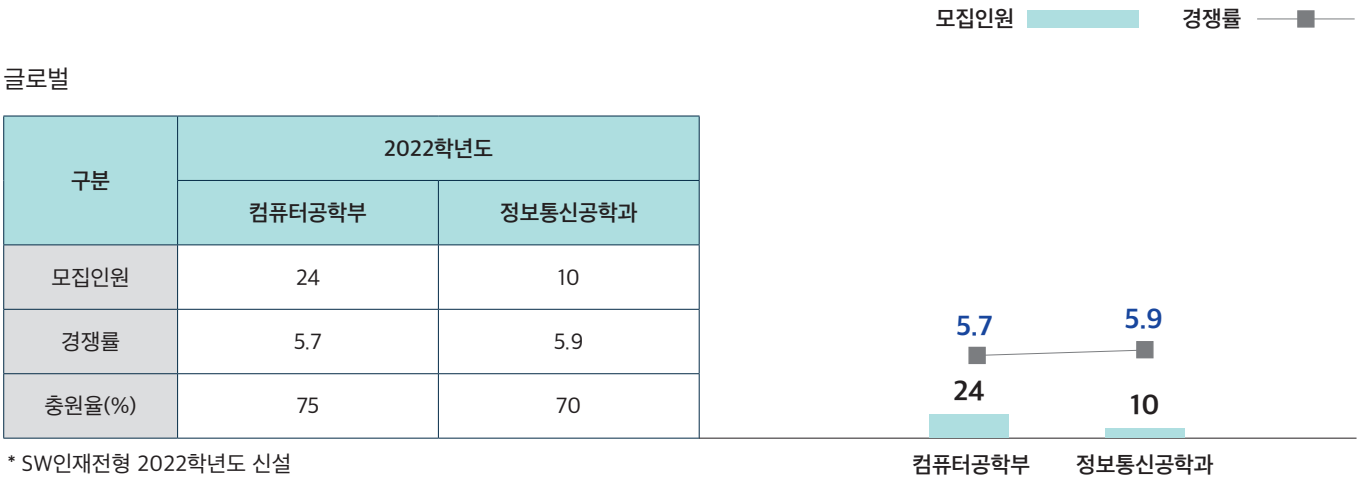
평가지표	반영 비율	평가 내용	주요 평가 항목
계열적합성	40	지원 계열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관련 소양 평가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논리적 사고력	40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질 평가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판단력
인성	20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성품과 민주사회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 및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의 성품 평가	공동체 의식, 올바른 가치관

2. 전형결과
가.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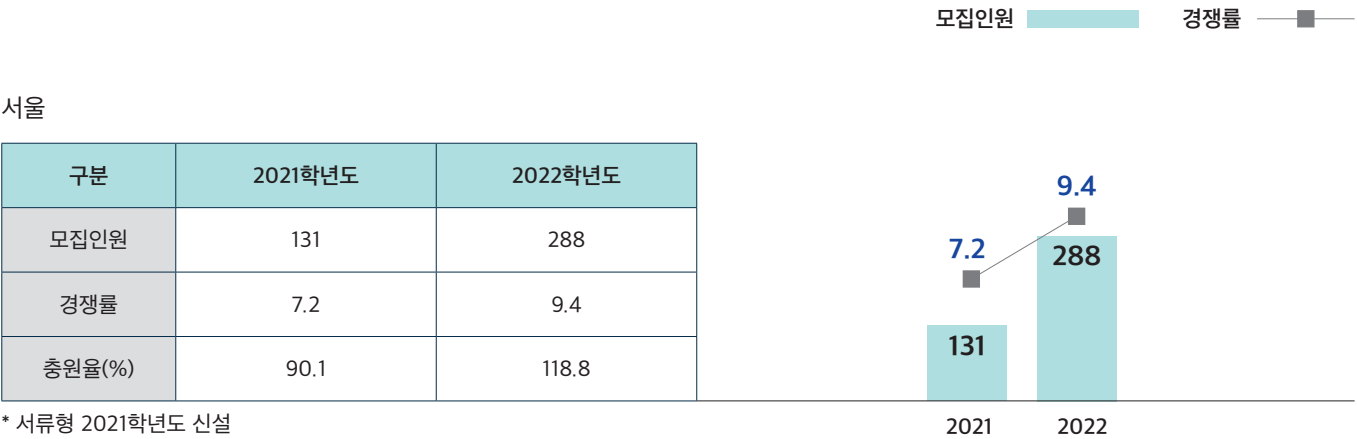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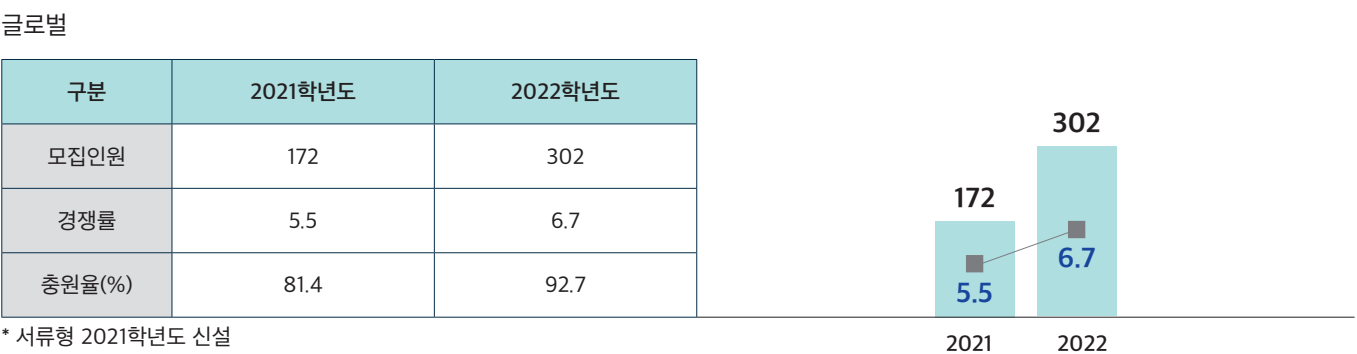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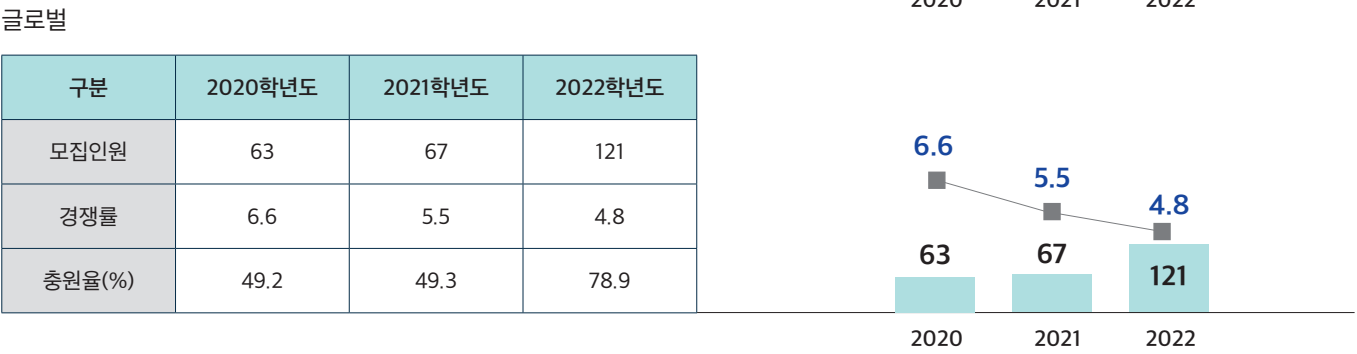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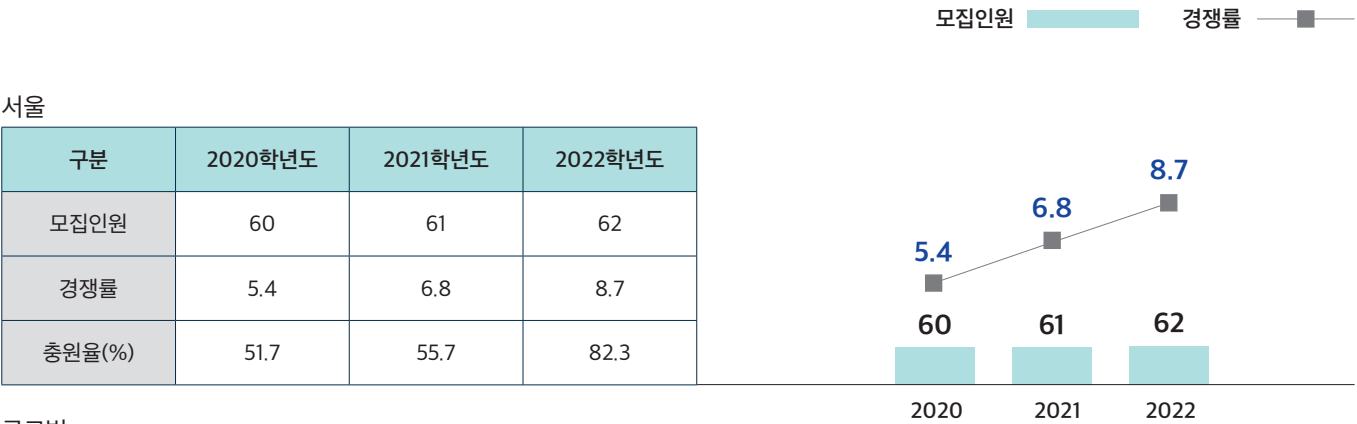


* 서류형 2021학년도 신설



* 서류형 2021학년도 신설

고른기회전형



나.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교과성적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SW인재)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경쟁률		교과성적*	
			21	22	21	22
영 어	ELLT학과		5.4	10.9	3.1	3.1
	영미문학·문화학과		8.1	15.1	3.3	3.9
	EICC학과		5.3	10.8	2.7	3.2
서 양 어	프랑스어학부		5.8	12.9	3.3	3.0
	독일어과		5.5	13.3	3.9	3.2
	노어과		6.7	11.0	3.7	4.2
	스페인어과		5.3	14.6	4.0	4.3
	이탈리아어과		5.2	9.3	3.9	2.9
	포르투갈어과		8.5	8.7	2.7	2.5
	네덜란드어과		5.0	10.7	3.8	4.9
	스칸디나비아어과		8.0	10.7	2.8	4.3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8	9.0	2.6	3.4
	아랍어과		6.4	10.5	3.1	3.1
	태국어과		5.5	10.0	3.0	3.0
	베트남어과		6.8	10.0	3.1	4.3
	인도어과		4.8	10.7	4.3	3.0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6.5	12.3	4.9	3.4
	페르시아어·이란학과		5.2	12.3	3.4	3.6
	몽골어과		7.7	9.0	4.3	4.5
중국학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9.1	14.6	2.9	2.8
	중국어교통상학부		7.8	14.8	3.0	2.5
일본학 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11.9	17.0	3.3	3.2
	융합일본지역학부		8.1	15.7	3.2	3.0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6.3	20.4	2.0	2.1
	행정학과		21.2	18.0	2.7	2.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3.3	22.2	1.9	2.0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10.2	13.4	2.4	3.0
	경제학부		6.6	11.3	2.6	2.9
경영대학	경영학부		12.2	16.7	2.2	2.4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0	12.7	2.0	2.7
	한국어교육과		6.5	13.3	2.1	2.0
	외국어 교육 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6.7	7.7	4.4	4.2
		독일어교육전공	4.4	9.3	4.0	4.6
		중국어교육전공	7.2	10.3	3.6	4.8
국제학부			11.9	18.3	2.4	2.3
Language&Diplomacy학부			6.3	12.3	2.3	2.3
Language&Trade학부			7.6	9.0	2.7	2.5
합계			7.9	13.3	3.1	3.2

※ 교과성적 : 최종등록자의 주요교과(계열적용) 단순 평균

■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경쟁률		교과성적*	
			21	22	21	22
영어	ELLT학과		6.2	6.6	2.0	3.5
	영미문학·문화학과		8.0	11.6	3.1	2.8
	EICC학과		6.3	7.6	2.2	3.0
서양어	프랑스어학부		6.6	8.2	2.9	3.5
	독일어과		6.0	7.6	3.1	3.5
	노어과		5.0	7.9	3.9	3.0
	스페인어과		4.8	9.1	2.5	3.2
	이탈리아어과		4.0	6.6	3.6	3.6
	포르투갈어과		6.0	6.9	2.9	4.1
	네덜란드어과		6.3	9.5	2.3	4.0
	스칸디나비아어과		5.0	6.4	2.7	3.3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5.6	6.5	2.9	2.8
	아랍어과		7.0	5.0	2.5	3.0
	태국어과		5.0	6.5	4.4	3.4
	베트남어과		6.5	6.2	3.0	2.6
	인도어과		6.3	5.3	2.9	4.6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5.6	6.0	2.8	3.2
	페르시아어·이란학과		4.5	5.8	2.6	3.5
	몽골어과		6.6	6.5	3.6	3.6
중국학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7.6	10.2	2.9	2.7
	중국외교통상학부		7.6	9.0	2.7	2.8
일본학 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10.3	9.8	3.1	2.5
	융합일본지역학부		7.3	8.7	1.8	3.1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1.6	11.6	2.0	1.8
	행정학과		13.3	16.0	2.3	2.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2.3	18.2	2.4	2.4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0	10.0	2.0	2.6
	경제학부		8.3	9.2	1.7	1.9
경영대학	경영학부		10.2	14.2	2.1	2.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6.6	15.0	2.7	1.8
	한국어교육과		7.0	17.5	2.0	2.0
	외국어 교육 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5.5	8.0	2.5	2.4
		독일어교육전공	4.5	8.0	3.4	3.9
		중국어교육전공	5.5	15.5	4.9	3.8
국제학부			8.5	15.4	3.5	2.2
Language&Diplomacy학부			8.5	11.0	1.6	1.6
Language&Trade학부			6.5	8.5	3.3	2.1
합계			7.2	9.4	2.8	2.9

※ 교과성적 : 최종등록자의 주요교과(계열적용) 단순 평균

글로벌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경쟁률		교과성적*	
		21	22	21	22
인문	철학과	4.1	5.8	3.6	3.5
	사학과	5.8	8.9	3.2	3.2
	언어인지과학과	3.6	5.6	3.3	3.9
통 번 역	영어통번역학부 모집중단	7.0	6.8	2.9	3.5
	독일어통번역학과	4.5	5.0	3.6	3.9
	스페인어통번역학과	5.8	7.1	4.1	3.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5.0	6.3	4.7	4.3
	중국어통번역학과 모집중단	8.5	9.5	3.6	3.3
	일본어통번역학과 모집중단	7.8	11.4	4.0	3.4
	태국어통번역학과 모집중단	5.1	5.0	5.0	4.1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4.6	6.0	3.9	3.8
동 유 럽 학	폴란드어과	4.1	5.6	4.0	3.9
	루마니아어과	4.1	5.9	5.0	4.4
	체코·슬로바키아어과	4.5	5.6	4.4	4.2
	헝가리어과	4.8	5.2	4.4	4.4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4.6	5.8	4.2	4.7
	우크라이나어과	4.5	7.0	5.6	4.8
국 제 지 역	프랑스학과 모집중단	5.3	6.0	3.5	4.1
	브라질학과 모집중단	4.4	5.6	4.9	4.4
	그리스·불가리아학과	4.0	6.2	4.9	3.7
	인도학과 모집중단	4.0	4.8	3.7	4.3
	중앙아시아학과	4.2	6.1	4.8	3.9
	아프리카학부	5.0	4.5	3.7	3.7
	러시아학과 모집중단	7.2	6.3	3.6	4.7
	한국학과	5.3	5.7	3.9	3.5
경상	GBT학부	7.0	6.0	2.7	3.2
	국제금융학과	4.7	6.2	2.7	2.4
융합 인재	융합인재학부	7.9	7.4	2.9	3.2
글로벌스포츠평산업학부		9.6	17.4	2.9	2.5
글로벌자유전공학부(인문) 신설		-	-	-	-
자연 과학	수학과	6.2	5.1	3.0	3.6
	통계학과	4.0	5.0	3.0	3.5
	전자물리학과	3.8	5.1	3.8	4.4
	환경학과	6.0	10.6	3.4	3.0
	생명공학과	7.6	7.9	2.5	2.5
공과	화학	6.6	6.3	3.1	2.9
	컴퓨터공학부	4.7	9.0	3.3	3.0
	정보통신공학과	4.0	8.3	3.5	3.5
	전자공학과	3.5	7.5	3.7	3.2
공과	산업경영공학과	4.8	6.0	3.2	3.3
	바이오테크놀로지공학과	5.3	7.0	2.6	2.3
	글로벌자유전공학부(자연) 신설	-	-	-	-
글로벌캠퍼스 소개		5.4	6.8	3.7	3.6

■ 고른기회전형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경쟁률		교과성적*	
			21	22	21	22
영어	ELLT학과		4.3	6.3	2.4	2.3
	영미문학·문화학과		5.6	7.0	2.2	2.4
	EICC학과		4.5	5.5	2.3	1.9
서양어	프랑스어학부		6.0	6.3	2.6	2.4
	독일어과		5.3	6.3	2.5	4.0
	노어과		6.0	7.5	2.4	3.1
	스페인어과		6.0	9.0	3.9	3.4
	이탈리아어과		6.0	6.0	3.5	3.2
	포르투갈어과		5.0	7.0	2.7	2.4
	네덜란드어과		4.0	6.0	3.6	2.9
	스칸디나비아어과		4.0	6.0	2.3	3.4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9.0	5.0	2.2	2.8
	아랍어과		5.0	6.5	2.8	3.0
	태국어과		6.0	8.0	2.6	2.7
	베트남어과		8.0	7.0	5.0	2.2
	인도어과		4.0	6.0	3.1	3.4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5.0	7.0	4.8	4.7
	페르시아어·이란학과		4.0	9.0	7.2	3.5
	몽골어과		4.0	8.0	5.8	4.1
중국학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8.0	6.5	2.5	3.4
	중국외교통상학부		7.0	6.0	2.2	3.0
일본학 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8.0	12.0	2.7	2.9
	융합일본지역학부		7.0	10.0	4.7	4.1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9.0	12.0	2.2	1.9
	행정학과		13.0	12.5	1.9	2.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5	19.5	2.2	2.0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5	8.0	2.2	2.2
	경제학부		6.6	7.7	2.2	2.4
경영대학	경영학부		8.8	15.0	2.3	2.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0	11.0	2.2	1.8
	한국어교육과		9.0	15.0	2.5	2.0
	외국어 교육 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7.0	6.0	3.1	3.3
		독일어교육전공	4.0	6.0	2.7	4.7
		중국어교육전공	5.0	10.0	7.3	3.4
국제학부			7.0	10.0	2.0	2.9
KFL학부			-	4.0	-	6.2
합계			6.7	8.7	3.1	3.0

※ 교과성적 : 최종등록자의 주요교과(계열적용) 단순 평균

다. 경쟁률 상위/하위 학과 비교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SW인재)

서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2:1
	정치외교학과	20.4:1
	국제학부	18.3:1
	행정학과	18.0:1
	일본언어문화학부	17.0:1
	태국어과/베트남어과	10.0:1
하위	이탈리아어과/독일어교육전공	9.3:1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몽골어과/ Language&Trade학부	9.0:1
	포르투갈어과	8.7:1
	프랑스어교육전공	7.7:1

글로벌(자연)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환경학과	14.7:1
	생명공학과	11.7:1
	화학과/산업경영공학과	7.3:1
하위	통계학과	5.3:1
	전자물리학과	5.0:1
	수학과	3.7:1

글로벌(인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32.3:1
	융합인재학부	14.6:1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2.0:1
	루마니아어과	10.3:1
	사학과	10.0:1
하위	한국학과/중앙아시아학과	7.0:1
	독일어통번역학과	6.8:1
	아프리카학부	6.6:1
	철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6.3:1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6.0:1

※2023학년도 모집중단 학과 제외

■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서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8.2:1
	한국어교육과	17.5:1
	행정학과	16.0:1
	중국어교육전공	15.5:1
	국제학부	15.4:1
하위	베트남어과	6.2:1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6.0:1
	페르시아어·이란학과	5.8:1
	인도어과	5.3:1
	아랍어과	5.0:1

글로벌(인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17.4:1
	사학과	8.9:1
	융합인재학부	7.4:1
	스페인어통번역학과	7.1:1
	우크라이나어과	7.0:1
하위	한국학과	5.7:1
	언어인지과학과/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5.6:1
	헝가리어과	5.2:1
	독일어통번역학과	5.0:1
	아프리카학부	4.5:1

※2023학년도 모집중단 학과 제외

글로벌(자연)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환경학과	10.6:1
	컴퓨터공학부	9.0:1
	정보통신공학과	8.3:1
하위	산업경영공학과	6.0:1
	수학과/전자물리학과	5.1:1
	통계학과	5.0:1

■ 고른기회전형

서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9.5:1
	경영학부/한국어교육과	15.0:1
	행정학과	12.5:1
	일본언어문화학부/정치외교학과	12.0:1
	영어교육과	11.0:1
하위	ELLT학과/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6.3:1
	이탈리아어과/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인도어과/ 중국외교통상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독일어교육전공	6.0:1
	EICC학과	5.5:1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5.0:1
	KFL학부	4.0:1

글로벌(인문)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사학과	9.0:1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6.0:1
	체코·슬로바키아어과	5.5:1
	철학과/루마니아어과/우크라이나어과	5.0:1
	GBT학부	4.8:1
하위	독일어통번역학과/아프리카학부	4.3:1
	헝가리어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중앙아시아학과/ 국제금융학과	4.0:1
	융합인재학부	3.7:1
	스페인어통번역학과/폴란드어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한국학과	3.5:1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3.0:1

※2023학년도 모집중단 학과 제외

글로벌(자연)		
구분	모집단위	경쟁률
상위	통계학과/생명공학과	6.0:1
	컴퓨터공학부	5.7:1
	환경학과/바이오메디컬공학부	5.5:1
하위	전자물리학과/전자공학과	5.0:1
	산업경영공학과	4.3:1
	수학과	3.0:1

3. 전형 Q&A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를 통해 계열 관련한 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서류형은 면접평가 없이 서류평가만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적/탐구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접형에서는 다소 성적이 낮더라도 계열 관련 활동이 우수하다면, 면접을 통해 본인의 우수성을 나타내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형(SW인재 포함),
서류형의 서류평가 시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면접형은 계열적합성을 중심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 노력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면접에서 해당하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류형은 탐구역량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충실도를 서류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방법, 중점적 평가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고,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구분	탐구역량	계열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면접형/SW인재	20	40	20	20
서류형/고른기회	40	20	20	20



평가요소를 학업(탐구)역량에서
탐구역량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업(탐구)역량이라는 평가요소를 ‘학업=교과성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업(탐구)역량을 40% 반영하는 서류형에 대해 교과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업(탐구)역량은 학업성취도 이외에도 학업태도, 학업의지, 탐구활동 즉,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호기심, 학업에 대해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학업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탐구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목 등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도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탐구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과
SW인재에서 면접반영 비율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과 SW인재는 서류평가에서 학생들이 지원계열 및 관심 분야에 대해 노력한 활동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면접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022학년도 2단계 면접평가 비율을 30%에서 2023학년에 40%로 비율을 강화한 것은 면접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인
계열적합성은 전공적합성과
어떻게 다른가요?

본교는 고교교육과정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국가전략언어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으로 평가하면 지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고교생활 중 특정 분야의 전공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지원한 계열과 관심분야에 대한 소질 및 적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도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진로선택과목이며, 그렇기 때문에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는 탐구역량, 계열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네 가지 평가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진로선택과목을 통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선택한 동기, 과정,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본인의 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자기주도성)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SW인재 전형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SW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보여준 학생을 선발하며, 큰 범주로 보면 면접형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분야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T,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신 취득의 불리함이 있는 학교의
경우 고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출신고교, 성명, 인적사항 등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린 채 진행됩니다. 교과성적의 경우 원점수, 등급석차, 표준편차, 평균점수 등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과성적을 받기 어려운 학교임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교과성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본인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혹은 성취 교과의 수준 등을 종합하여 정성평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면 or 비대면 중 무엇인가요?

면접고사가 있는 전형은 학생부종합(면접형), 학생부종합(SW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하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 면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면접 방식 변화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기부 내용이 많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최근 학생부 기재요령에서의 변화가 많습니다(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등).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별은 더욱 없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은 모두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외대에는 융복합 학과들이
있는데요.(EX) LD/LT/ELLT/
융합인재학부 등) 특별히 선호하는
계열(인문 or 자연)이 있나요?



전략지역언어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계열적합성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학년 때
준비해도 늦지 않나요?



학교생활기록부 수상 내역에 학기당
하나의 수상만 기재가 가능한데
등위가 높은 수상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수상 등위는 낮더라도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연관성이 높은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게 유리할까요?



글로벌캠퍼스에 신설된
글로벌자유전공학부(인문, 자연)는
어떤 학생이 지원할 수 있나요?



글로벌캠퍼스에 신설된
글로벌자유전공학부(인문, 자연)의
계열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열의 학생을 선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교의 융복합
학과들은 인문과 자연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계열 모두 관심을 가져본 학생이라면 본인의 주 계열에 상관없이 지원해도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계열적합성은 넓은 범주로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전략지역언어학과는 고교교육과정을 통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외국어에
대한 습득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자가 3학년
1학기 때 해당 학과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자가 학교 생활 내에서
활동했던 경험들로 우리 대학이 정한 평가 요소들과 부합한다면 수상의 종류,
등위와는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로벌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동안 계열 구분 없이 교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진급
시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이기 때문에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목표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형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과목선택권을 적극 활용하여 탐구역량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면접형의 경우 계열적합성을 넘어 진로역량을 보여준 활동 및 사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교 생활 중 진로와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폭넓게 평가합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동기,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교과 활동을 평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 및 계열에 대해 관심 등을 폭넓게
평가합니다.

FAQ1. 서류평가

1. 평가요소별 학교생활기록부 파헤치기

탐구역량

정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평가항목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어떤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 살펴보기	■ 자율활동/독서활동에서 탐구역량이 잘 드러나는 사례 아프리카학부 합격생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특기사항		
	2	자율활동	유네스코 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도서 '국제기구와 교육, 문화, 노동, 스포츠'와 '특별대표가 전하는 캄보디아 아이들 이야기'를 보면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여건과 사례를 조사하고 통계자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본인 명의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한 세계아동 후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천해봄.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상황	
	2	독서	(2학기) 향수 속의 한국사회(김왕배),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오만석),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쟁점(김진희)	
		생활과 윤리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김누리 외3), 백소영의 드라마 속 윤리(백소영)	
		공동	(1학기)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유엔과 국제 활동 정보센터), 유니세프가 들려주는 어린이 권리(제라르 도텔)	
	3	공동	(1학기) 기적을 노래하는 천사들(김재창), 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이지양 외 5인),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박상필)	
	해당 학생의 경우, 자율활동과 독서활동의 연계성을 통해 탐구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2학년 자율활동 때 크게는 인권,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육여건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독서활동에서는 2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호기심을 보인 난민, 교육, 국제기구, 인권 등과 관련된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하는 모습을 통해 탐구역량을 잘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탐구역량이 잘 드러나는 사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합격생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 : 상호텍스트 분석 활동에서 '코로나19와 학습'에 관한 두 기사를 비교함.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가 극심해졌다고 우려하는 반면, 기사2는 디지털교육이 오히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및 계층의 벽을 뛰어넘게 해줄 것이라 주장한다고 분석함. 두 기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모두 고려할 때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나아가 디지털 보급률과 빈곤지수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적극적인 탐구자세를 보여주기도 함.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사회·문화 : 사회·문화 현상 연구 계획 수립 활동에서 양적연구 주제로 '고등학생의 뉴미디어 사용과 행복간의 상관관계'를 선정해 질문지법으로, 질적연구 주제로 '한국언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유'를 선정해 기사, 제작자 등 방송관계자에게 심층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계획을 세움. 뉴미디어의 필터 버블과 그로 인한 에코 챔버 등 문제점을 소개함. 이들이 극단주의를 강화한다고 분석하고 기업은 맞춤형 추천 시 다른 시각도 함께 제시하고 개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입장에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자신의 미디어 이용도 반성하게 됐다고 밝힘. 소셜 체인저 주제로 정보격차를 설정해 캠페인 기획서를 작성함. 원인으로 정보 자유화·상품화, 사회·경제적 배경 및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제시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모바일 디바이드로 심화됐다고 현황을 분석함. 해결책으로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은퇴 계층 경제활동을 위한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비대면 무인 시스템 구축 시 누구나 이용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안함. 해결책 실현을 위한 정부 지출을 공익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 통계, 만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캠페인 책자를 만들음.				
해당 학생의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탐구역량을 잘 나타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이 우리의 삶 속에 편재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라는 점에서, 해당 학생은 2학년 독서 시간에서 사회현상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관련성 조사를 함으로써 탐구활동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사회·문화 시간에도 사회현상에 대해 조사·분석, 현황 분석, 해결책 제시와 더불어 해결책 실현을 위해 캠페인 책자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탐구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의 탐구역량이 잘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탐구역량에서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정량적 지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때는 종합적인 학업능력과 학년 변화에 따른 성장,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른 학기별 분석과 개별적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탐구역량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자발적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교과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적극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의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이 주도적인지, 진취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보이는지, 지적인 관심사와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등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탐구역량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충실도는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호기심,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학업을 수행해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열적합성

정의	지원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			
평가항목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계열 관련 활동과 경험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지원 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 살펴보기	■ 동아리/진로/독서활동에서 계열적합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 ELLT학과 합격생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3	동아리 활동	-	(심화전공탐색반)(16시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영어학의 실용성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활동해나감. AI와 언어를 접목시킨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그 원리, 특징, 활용에 대해 조사함. 사람 뇌의 학습 과정에 기반한 '딥러닝'에서 음소 및 어휘 등 언어적 학습 데이터를 통해 대화 패턴을 학습하는 핵심원리로부터 언어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학습함. 번역에 활용되는 코퍼스의 의미와 유용성에 대해 조사함. 영단어 코퍼스 분석에 활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Antconc' 사용법에 대한 강좌를 직접 찾아 들음. Antconc로 실습 활동을 하며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지문 모음 속 영단어 기출 빈도를 알아내고 통계를 내어보는 활동을 함. 영단어에 대한 관심과 통계를 접목시킨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에서 융합적 역량이 보임.
		진로 활동	-	AI 발전에 관심을 보이며 이에 인문학적 부분을 접목시켜 사고하고 활동해나가는 학생임. 언어 통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저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 AI 통번역의 원리로 인공지능경망과 딥러닝이 활용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인간과 AI 통번역을 비교했으며 통번역의 분야별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함. '미래에 모든 직업이 AI에 대체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에이트>를 찾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함. 인공지능의 일상을 점점 지배해갈 미래에도 살아남게 할 인간 고유의 덕목으로 공감과 상상력, 윤리 및 철학적 문제인식능력이 필수가 되어갈 것임을 깨닫는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힘. 이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상황	
	3	정보	(1학기) 데이터 프라이버시(니혼게이자이 신문 데이터 경제 취재반)	
		공동	(1학기) 에이트IGHT(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지성) , 번역기도 모르는 진짜 영어(박혜민), 영어는 대체 왜? 그런가요(채서영)	
	해당 학생은 3학년 동아리/진로/독서활동의 연계성을 통해 계열적합성을 잘 보여줍니다. 학생이 지원한 ELLT학과의 교육목표가 언어학과 공학 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점에서 학생이 동아리 및 진로활동에서 보여준 AI와 언어를 접목시킨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그 원리나 특징에 대해 조사했다는 점, 딥러닝을 통해 언어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학습하고, 인간과 AI 통번역을 비교하여 통번역의 분야별 대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점 모두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활동과 경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계열적합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도서(에이트)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 점도 동아리 및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계열적합성을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계열적합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합격생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영어Ⅱ : 미국과 독일의 관계에 대한 지문을 읽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이 맺은 NATO 조약을 다룬 영어 기사를 찾아 심화 탐구함. 선정한 기사가 수준이 높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방송사 보도 뉴스를 추가로 찾아가며, 사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피진어와 크레올어에 대해 팀을 이루어 자율 발표함. 공통점 없는 두 언어가 섞이면서 발생하는 임시 언어인 피진어와, 피진어가 정착된 개념인 크레올어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함. 자신의 발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발표도 경청하며 일본어의 '혼네', '타테마에', 개념에 호기심을 표현함.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심화영어독해Ⅱ : 수능특강의 '빈곤국'과 관련된 지문을 학습 후 1980년대의 빈곤국의 가난한 이유를 사회적, 종교적, 지리적 3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여 급우들에게 발표함. 빈곤국의 해결방법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벤치마킹, 경제발전의 필요성 교육, 국민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명확히 한 점이 인상적임.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한국지리 : 세계화, 외교, 국제정치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외국어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함. 지리적으로 생각하여 글쓰기에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세계 국가들의 관계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함. 지리학이란 지리적 조건이 국제정치의 권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문이라 소개함. 자연적인 국경선의 확립, 중요한 해상통로에 대한 접근,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 등의 고려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함.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세계 경제력 3위 일본, 세계 경제력 2위에 군사력 3위의 중국,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 세계최강대국 요충지라고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음. 분단 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공존 체제로 안정화하고 한반도가 열강의 교두보가 아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우수하였음.				
해당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의 연계성을 통해 탐구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영어Ⅱ 과목에서는 NATO조약을 다룬 영어 기사를 읽은 점, 피진어와 크레올어에 대해 예시를 들어 발표한 점을 들어 언어 계열과 관련된 계열적합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영어독해Ⅱ 과목에서는 1980년대의 빈곤국의 가난한 이유를 사회적, 종교적, 지리적 3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점, 한국지리 과목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세계 국가들의 관계를 주제로 글을 작성한 점에서 사회·경제·문화적인 계열적합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Tip	평가자가 계열적합성을 판단할 때 지원자의 지원 계열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입학 후 해당 계열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열적합성을 통해 지원자가 지원한 계열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몰입한 경험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열적합성에서는 지원 계열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정,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열정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성

내용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평가항목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 살펴보기	■ 수상경력/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인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 융합인재학부 합격생											
	학년(학기)		수상명		등급(위)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1 2		모범학생 표창 (자치·자율 부문)		-		0000.00.00.		00고등학교장		전교생(000명)	
	3 2		공로상		-		0000.00.00.		00고등학교장		3학년(000명)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공간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상황을 헤아릴 줄 알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최고의 학생임, 아우라가 있으며, 급우 모두에게 봉사상 추천 대상으로 선정될 정도로 신망과 신임이 두터우며 과목 담당 교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음. 멘토링 활동에서 역사 멘토를 자청하여 급우의 학습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수련활동에서는 자청하여 급식 봉사를 함께, 체육한마당에서 학급 계주 대표로 참여하여 다른 반 친구의 발에 넘어져 심하게 다쳤어도 끝까지 달리고 찾아온 친구를 격려함.									
	해당 학생은 수상경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의 연계성을 통해 인성을 잘 보여줍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이 학생은 급우 모두에게 봉사상 추천 대상으로 선정될 정도로 신망과 신임이 두터우며, 멘토링이나 급식 봉사에서 자청해서 급우들을 위해 봉사한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 이 학생의 수상경력을 보면 모범학생으로 표창을 받고, 공로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인성을 보이는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인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 환경학과 합격생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께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친절하고 특유의 유머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친구에게 '밝음이'로 인정받음. 시간 약속과 학교 교칙 및 학급 규칙을 엄수하여 생활평점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중하고 바른 행동으로 교사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함. 친구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조언 하였으며 교실 뒷자리나 물품 관리 같은 곳을 일에 솔선수범하여 신임을 얻음. 특히 학업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의 수행평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며 도움. 학급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함. 또한 학급활동에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배려하는 등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등교하거나 이동시 학교관계자분들께 먼저 인사하고 평소 억지사지의 마음으로 언행을 조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학생임. 또한 말보다 먼저 스스로 복장 규정, 등교시간 등의 생활기초습관을 잘 지켜 타인의 모범이 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신임이 두터움. 2017년 03월 13일부터 12월 15일 동안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학교규칙을 훌륭히 준수하여 생활평점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음										
해당 학생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인성이 잘 드러납니다. 이 학생은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부분에서 학생의 인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1학년과 2학년 때에 생활평점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시간 약속, 학교 교칙, 학급 규칙 등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성 부분이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Tip	인성 항목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가 봉사활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봉사활동 외에도 수업시간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급우들과 협력할 수도 있으며, 학급이나 동아리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규칙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나타내거나,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경험 속에서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성을 평가할 때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등의 평가항목이 있지만 이러한 역량을 골고루 모두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 자체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발전가능성

내용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평가항목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과 결과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생기부 주요항목	수상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 살펴보기	■ 자율활동에서 발전가능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 환경학과 합격생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특기사항		
	3	자율활동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점심시간에 자습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의응답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학상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임. 환경미화 활동으로 단순한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급의 쾌적한 환경을 고려해 테이블 아자, 아이비와 같은 공기정화식물과 직접 제작한 공기정화식물 설명집을 배치해 학우들과 공기정화식물의 효능 및 특징을 공유하고 학급 공기정화에 기여함. 자율과제연구시간에 교내 환경벤처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이 존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에 안타까워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함. 다양한 환경벤처기업의 특징들과 각 벤처기업의 사업의 참여 방법들을 정리해 직접 제작한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환경벤처기업 연결 홈페이지인 '나눔 Planting'을 공유해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나눔Planting의 미래와 자신이 설립하고 싶은 새로운 환경에너지벤처기업의 형태를 제시함.	
	해당 학생의 경우, 3학년 자율활동을 통해 계열적합성(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이 학생은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학급 친구들과 질의응답 등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리더십 역량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율과제연구시간에 설문조사를 진행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캠페인을 주도했다는 점, 다른 학생들이 환경벤처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 점, 나아가 자신이 설립하고 싶은 새로운 환경에너지벤처기업의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등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발전가능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 중국언어문화학과 합격생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학Ⅰ : 집중력이 뛰어나고 틈틈이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자투리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통찰력과 계산력이 뛰어나 고난이도 문제풀이를 매우 잘함. 영화 '페르마의 밀실'을 보고 박하사탕 문제를 반 친구들에게 제시하고 판서를 통해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음. 수행평가를 위해 읽은 책이 몹시 재미있어서 원래 목적을 까먹고 탐독하며 관련 도서를 찾아 더 읽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애정이 높음. 학급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해결하고 싶을 때 쉬는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학생임.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미적분Ⅰ :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의지가 될 만큼 바른 수업태도를 가진 학생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였으며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 또한 수업 외에도 찾아와서 질문하고 배우는 열의가 있기에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임. 미적분을 배우면서 미적분이란 학문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어 실생활에 쓰이는 미적분에 대해 조사하다가 '단속카메라의 비밀'이란 주제로 수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PPT를 만들어 발표함.			
해당 학생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발전가능성(자기주도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학생의 경우, 1학년 수학Ⅰ 과목 시간에 수행평가를 목적으로 읽은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탐독하고, 관련 도서를 찾아 읽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학년 미적분Ⅰ 과목 시간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의지가 될 만큼 바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으며, 수업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할 뿐만 아니라 수업 외 시간에도 담당 교사를 찾아가 질문하는 열의를 보여주는 등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ip	발전가능성은 지원자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주도성 항목에서는 지원자가 수업을 비롯한 교내 각종 활동에서 새로운 과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거나 또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때문에 자기주도성은 여러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항목은 리더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임원활동'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리더십은 단순히 임원활동 여부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가 아니라 작은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내용, 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 의식 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원활동이 없더라도, 리더가 아닌 팀원으로 활동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리더십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형, 이렇게 합격했어요!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아프리카학부 이유나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제 고등학교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한한 열정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던 무렵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를 목표로 하여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외대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학과 설명회는 물론이고 주변 한국외대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등 어떠한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참여해 주변 선생님들이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처럼 제 고등학교 3학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국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학생들이 면접형과 서류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원서 접수 전날까지 고민했다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아프리카학부에 지원하였기에 각 전형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지원했음에도 면접형은 예비번호를, 서류형은 최초합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체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면접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서류형을 지원하거나, 내신 성적이 타 지원자보다 낮을 것이라 속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포기하기보다 본인의 강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면접 준비도 꾸준히 했으나 서류형 또한 지원했기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저를 평가하는 단 한 가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저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부분을 정성을 다해 채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제 진로와 관련된 스토리를 잘 만들었고, 그것이 서류형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매사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은 다른 전형보다 ‘꾸준함’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어떤 전형보다도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면밀히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성실한 학교생활과 학교 선생님들과의 꾸준한 상호작용이 저를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이라는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저는 지역 선지원 고등학교로, 학교 측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알맞은 풍부한 활동들을 많이 제공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모교의 장점을 잘 이용해 1학년 때부터 계열적합성에 알맞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기에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 양질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 덕분에 다른 전형을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굉장히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꾸준함’과 ‘본인의 목표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입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많은 시험들과 입시 부담감을 안고 달려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생 시절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나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대해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대학교 입학처를 수시로 방문해 참고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개개인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늘 낮은 내신등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선지원 고등학교 출신으로 타 지원자들에 비해 내신등급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하며 지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내신을 극복하고자 끝까지 내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차별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성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있어서는 내신 성적을 채울만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수학에 대한 열정과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수학 선생님께서도 저의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셔서 긍정적으로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과목을 세부능력특기사항으로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목 세부능력특기사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학 II 과목 세부능력특기사항에서 ‘수학 성적은 비교적 미흡하나 본인의 약점을 알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적극적인 학생’이며 ‘끊임없이 친구들과 교사에게 질문하는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수학 포스터 만들기 수행평가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쉬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로와 연관 지어 준비하였습니다. 수학 II 개념인 ‘미분’과 ‘NGO 단체가 활용하는 교육 키트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의 작동 원리’를 주제로 하여 참신한 과제를 제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주최하는 수학 페스티벌에 조장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모교 선배님과 함께하는 수학 멘토링의 멘티로 참여하여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지역 우수학생을 위한 수학교실에 참여하여 수업을 듣는 등의 열정을 보였기에 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 과목보다 성적이 미흡한 과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 제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발전가능성과 다른 학우들과 차별화되는 생기부로 계열적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열 관련 교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제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을 풍부하게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되지 않은 교과목(ex. 수학, 과학 탐구 등)또한 세부능력특기사항과 독서활동 기록을 통해 해당 교과목과 진로의 접점을 찾고, 학습의지와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비롯해 그렇지 않은 활동도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참여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은 봉사시간(단순히 시간 채우기용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제 진로와 연관된 봉사활동을 직접 하였습니다.)과 여러 분야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양의 독서기록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 선생님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생기부의 다양한 부분에서 제 강점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제

성적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열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이 제 생기부를 다채롭게 만들었고, 강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기울인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 저는 선지원 고등학교를 다니며 내신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타 학생들에 비해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기에 학생부종합전형을 계속 준비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했기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는 과목은 받을 수 있는 등급의 최대치로, 비교적 약한 과목은 할 수 있는 등급의 범위 안에서의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느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의 최대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매 시험마다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점수나 등급을 써두고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거나 친구들에 비해 낮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학업에 있어 약한 과목을 알고 그 구멍을 메꾸어 나간다면 충분히 발전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목표로 국어교사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주변인들의 조언을 통해 조금 더 넓은 분야를 알게 되었고, 현재 난민교육과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과선택 및 진로선택을 할 때에는 본인의 관심사와 잘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진로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기에 진로가 변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정해 그 분야에 파생되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잘 알아본다면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HUFs 학생부전형 가이드북을 읽는 후배님들은 본인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은 고되고 힘들겠지만 목표를 이룬 후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소중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며 다른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할 때도 있을 것이고, 주변 환경에 의해 휩쓸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합격수기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후배님들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합격하여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결과에 상관없이 후배님들은 그 자체로 빛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허지민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고교 생활 3년 내내 방송 언론 분야의 교내 및 교외 활동, 그리고 스피킹 관련 대회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학생부종합전형이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개가 있어 고민하던 중 면접 일정이 수능 이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내신을 챙기느라 수능 준비에 소홀해져 있었고, 때문에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했기에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면접형은 저에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 중 서류평가로만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학생부종합전형은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무리 내용이 알차도 내신 성적이 낮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신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수업(생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음)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다보니 선생님들도 좋게 봐주셔서 각 교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 활동에서 저의 관심 분야와 잘 엮어서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2점대였기 때문에 세부능력특기사항 활동을 풍부하게하기 위해 자율활동도 많이 참여했고, 비교과활동도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학교 3군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형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내내 ‘꾸준히’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마냥 쉬고 싶었지만, 선택해서 할 학생들만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한 학년이 끝날 때마다 나의 관심분야와 적극적인 학교생활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활동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내신도 열심히 챙겨온 저로서는 기본적인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내신도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방송기자라는 뚜렷한 진로와 방송 언론 분야라는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워가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관심도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학창시절은 공부만 해야 하는 나이라고 한정 지을 나이인데도, 좋은 기억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고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즐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전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굳이 모든 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전형을 꾸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나오는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수능최저가 필요 없는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것처럼 모든 전형을 준비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고 싶은 특정 대학을 정했다면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의 내신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준비한다면 즐겁게 고교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어렵다기보다 조금 힘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내신공부를 하면서도 부가적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탐구활동 등 여러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하다보니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방학 때나 시험기간 끝날 때 같은 시기에 홈트레이닝이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또 체육 수업시간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부족한 체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A: 탐구역량 측면에서 사회 탐구 과목의 성적(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통합사회 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로(방송기자)와 사회현상과도 큰 연관이 있었기에 학업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계열 적합성 측면에서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인 있는데,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인 ‘미디어 글쓰기’, ‘아나운서 미디어 스피치’를 추가적으로 수강하면서 대학에 진학해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능력특기사항에만 적기 어려웠던 계열적합성 분야의 내용을 알차게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내신의 과목에서 관심 분야관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부능력특기사항의 항목에서 나타내거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탐구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1학년 때 진로 부장, 2학년 때 학급 반장과 동아리 회장직을 맡으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자질, 봉사활동(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봉사활동, 비대면 영상 편집 등으로 활동함)을 통해 투철한 봉사정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Q: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기울인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A: 철저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학교 수업이 진행되기전에 미리 예습해간다면 (인강이나 문제집을 통해, 또는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력이 2배로 늘어나고 기억도 오래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메모해뒀다가 교과 선생님께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아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집 및 참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완벽하게 이해돼서 시험에 또 다른 적용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미리 수업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충실하게 집중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A: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 제빵사 체험, 경찰관 체험 등 여러 직업 체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지역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가서 뉴스 진행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때 방송기자의 매력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방송기자만이 저의 천직일줄 알았는데 대학에 오니 활동 환경이 넓어지면서 연출이나 감독, 광고 분야처럼 다양한 관심 분야가 생겨서 꿈이 불분명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은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로나 학과가 불분명하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나 학과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계열만 비슷하다면 그 안에서 배울 내용이 더 넓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오면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시즌이 학교생활기록부 준비하고, 내신 챙기고 많이 바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울 때 우선 관심 분야나 희망 진로를 기준으로 핵심 역량과 관련 키워드를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탐구활동이나 캠페인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대입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도 여러 활동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년 내내 내신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제가 좋아하는 활동인 방송부 활동을 병행한 결과, 대학에서 들어가고 싶은 영상사업단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었고, 전공 수업을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입을 준비하는데 있어 막막하고,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합격입니다’ 이 한 문장을 보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면접 안내사항

01 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1단계 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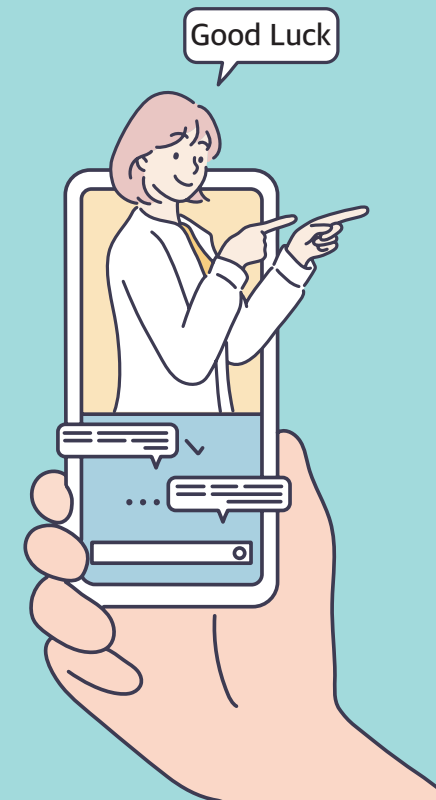
02 대기실 입실 시간 및 고사 시간

- 가) 1단계 합격자 발표 화면에 나와 있는 본인의 대기실 입실 가능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든 면접고사는 서울캠퍼스에서만 진행합니다. 글로벌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실제 고사 시간에 따라 입실 시간이 배정됩니다.
(입실 후 가번호 순서에 따라 면접진행)

TIME	ADD	interview
 	 HUFS 서울캠퍼스	   



03 면접 진행 절차



- 가) 개인별로 지정된 대기실 입실시간에 대기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 나) 대기실 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분확인 및 응시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 다) 본인의 면접순서가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하여 1인당 10분 내로 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 라) 면접이 종료되면 본인의 물품을 모두 챙겨 바로 고사 건물에서 퇴실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 블라인드 면접 진행 방법

가) 평가방법 : 지원자의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or 활동보고서, 활동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열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나) 블라인드 면접 시 유의사항

- ① 수험생은 절대 교복을 착용할 수 없고, 면접고사실 입실 시 수험표도 패용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대기실에서는 수험표 소지가 허용됩니다.)
- ② 블라인드 면접은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 도중 자신을 알리는 답변 및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부모님(친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 ④ 공인어학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2. 면접형, 이렇게 합격했어요!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중국언어문화학과 이현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 저의 고등학교 때, 수업이 일찍 끝나면 교탁 앞에서 담당 교과 선생님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쉬는 시간에는 교실보다 교무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항상 그 역할을 먼저 나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기획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활동들이 대부분이었고, 남들과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서 앞서나가 저만의 활동을 추가로 만들면서 저만의 생활기록부를 그려나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는 제가 목표로 잡았던 제 전공이 저와 너무 잘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활동 하나하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는 고등학교 때에 성적이 높은 편도 아니었고, 생활기록부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류로만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자신이 없었고, 합격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저를 더 표현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면접이 저에게 더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만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외대에 지원할 당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의 전형이 있는 것을 보았고, 면접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느껴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항상 기회를 찾기보다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교과 선생님께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려서 발표를 했던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교과 시간에 얻는 지식과 정보를 전공과 관련지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었고, 이 활동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주어진 5분 동안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해주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발표를 한다거나,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학급 임원이나 교과부장, 동아리 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제 관심사를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동아리나 교과목들도 제 전공 계열과 연결시켜 공부했던 과정들을 표현했던 것들이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입시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거의 매일 인터넷 카페나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각종 정보나 자료를 얻어 알아보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계획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형을 빠르게 결정하고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전형을 일찍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확정하고 준비했습니다. 평소 학교 성적에만 몰두하기보다 비교과 활동에 더 충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과 시간을 들인 비교과 활동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알아보고, 학생부종합전형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을 목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저는 고교생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꾸준함과 도전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꾸준함은 노력에 대한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배우고 느낀 점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도전하는 태도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만큼 남들과 다른 본인만의 활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활동은 결과보다 얻어가는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면접방법 등) 효과를 톡톡히 봤던 나만의 면접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답변을 다 외워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면접관이 저를 떨어뜨리고자 한다면 어떤 질문으로 떨어뜨릴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장 하나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질문까지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을 만들기 정말 힘든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질문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자연스레 습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학년 때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전 활동들 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활동들이 꽤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나 부서에 찾아가서 자료와 정보를 구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만들어 모두 암기했고, 이 결과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막힘없이 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만의 '꿀팁'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 제가 생각하는 제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계열적합성과 발전가능성(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선택 과목들 중에서 제 전공과 관련한 교과목들은 모두 이수하였었고, 거의 모든 교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 목록에 제가 희망했던 중국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일반고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전공 언어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에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면서 습득한 지식들을 학교 교과목에서 활용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학급 임원과 동아리부장, 교과부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 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급 친구들 모두가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가르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중국어 동아리를 창설하여 캠페인, 전시활동 등의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제 전공 계열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이 제 생활기록부를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Q: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꼭 준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점과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의 사소한 내용까지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준비했던 자료들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고 주변 사람들과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전 면접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리 겪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면접 분위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것까지 실제 상황처럼 자주 연습을 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면접 준비과정

이후에 후회되지 않도록 컨디션도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 저도 1학년 때는 전공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적성 검사에 항상 충실히 임하면서 저를 알아갔고, 많은 대학교에서 주최했던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나갔습니다. 희망 진로가 없어서 어떤 학과를 목표로 해야 될지 불안하다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로나 전공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경험을 얻으면 얻을수록 시야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 학생부종합전형이 본래 합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형이기도 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기록부와 면접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고교생활 3년 동안 후회 없이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꼭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시간들을 기대하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꿈이 확실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경영·경제 분야를 희망했다가, 2학년 때는 교육계열을 희망했다가, 2학년 말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학 및 언어공학 계열을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희망 진로가 자주 바뀐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각 학년별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각 학년마다 희망 분야에 대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인성이나 탐구역량 부분에서 좋게 작용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성적에 있어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학생입니다. 희망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점점 생긴 것이 내신 상승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이 2.8로 낮은 편이었지만, 점진적으로 성적이 올라 3학년 때는 내신 1점대 후반과 1점대 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면접을 통해 부족한 서류 점수를 보완해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신도 2점대 초중반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고, 좋은 자사·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점수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면접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나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면접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이나 서류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역량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시 기간동안 서류형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면접을 준비해 면접을 잘 본다면, 서류 점수가 낮아도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후배 분들 중에서도 서류 평가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형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갈지 끊임없이 생각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수록, 비교과 활동들이 더욱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바뀐 편이었습니다.

1학년은 아직 학교생활에 있어서 적응할 것이 많아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을 다 했던 편이라면, 2, 3학년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을 전부 하기보다 학교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만 참여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행사는 많았지만,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은 정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3학년 때는 학교 행사보다는 진로 및 전공 관련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언어 관련 계열을 희망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다수가 이공계열에 맞추어져 있기도 하고,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해나가야 할 비교과 활동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었기에 스스로 고민하며 희망 전공과 연관된 활동과 공부들을 해 나갔습니다.

다만, 모든 비교과 활동이 진로에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탐구역량이나 인성 등 다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로 외에도 학업 역량이나 인성,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공 외적인 활동'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그 사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보고서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인권교육이 방송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찾아보며 '코로나19로 인한 노숙인과 장애인 생활 변화'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 인권 교육을 열심히 듣고 이에 관한 심화 탐구활동을 한 점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 점 등이 드러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하신 선배로부터 들은 조언이 기억납니다. 신입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을 기본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정시와 논술은 난이도가 높고 시험 당일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위험이 큰 반면, 학교장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기 내신이 잘 나오지 않아도 다음 학기들에서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내신 성적은 뜻대로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장추천전형 대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과목이더라도 학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고, 성적이 점점 오르는 등의 성장하는 모습까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큰 특징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첫 번째, 진로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소리이고, 어린 나이에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전공을 찾으라는 무책임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기보다는, 앞으로 진학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선택권의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는 만큼 그 학문이 여러분의 관심사나 적성에 맞아야 하고, 향후 삶이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전공 수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 공부를 힘들어하고 다시 입시 준비를 고려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힘든 고등학교 시기를 끝내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더 잘 즐기려면, 고등학교 때 신중히 고민하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면접방법 등) 효과를 톡톡히 봤던 나만의 면접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가능한 많이 다양한 사람들과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학교 선생님들과 모의면접을 실시한 편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부 부장 선생님과도 면접을 보았고, 따로 면접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면접은 실전이기 때문에, 눈앞에 누가 있고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에 무관하게 준비한 것들을 전부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하기 위해 '타인 앞에서 하는 많은 연습'이 필요했고 주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전부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면접 당일 면접실에 들어가서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 그에 따른 피드백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A 선생님께서는 듣지 못한 피드백을 B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A 선생님과만 모의면접을 진행했다면 B 선생님께서 해주신 좋은 피드백은 혼자 생각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면접형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도 가능한 많이 다양한 사람들과 모의면접을 진행하시고, 여러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A: 비교과 활동 중 탐구역량과 계열적합성 측면에서, '전공에 관한 진심'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즉, 전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활동한 흔적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다른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만의 특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2학년 때 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님께 인터뷰를 요청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언어학을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현재 영어학은 어떤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어학 전공 희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단순 문헌 활용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의 종사자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할 만큼의 열정과 탐구역량을 드러내기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는 3학년 때 다른 활동으로 이어져 스토리를 완성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중 '영어학은 이미 연구된 바가 정말 많아 이를 시대 흐름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를 통해 4차 산업과 영어학의 융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어학 전공이 아니라 배운 것을 4차 산업에 맞게 응용하고 싶다는 희망 전공이 생겼고, '언어공학'을 위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I 번역기의 전망과 한계를 알아보고, AI 음성처리 원리에 대해 책을 읽으며 탐구했습니다. 또, 언어데이터처리 과정에도 관심이 생겨 직접 통계 프로그램과 원리를 이용해 영어지문 분석을 하여 통계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인문 계열 학생이지만, 이 활동들을 통해 이과 영역을



탐구하며 융합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많이들 언급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스토리’가 잘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다면 깊이 있는 좋은 활동들로 탐구 역량과 계열적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Q: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꼭 준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점과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 ‘이 학교에 지원하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흔히 대입 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혹은 했던 학교 활동들을 말로써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 당일, 질문을 받아보니 제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질문들도 나와서 아차 싶었던 경험이 기억 납니다. 저는 스스로 준비했던 비교과 활동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질문들을 위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 분께서 A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A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또는 이를 통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았던 질문은 정말 간결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이 학과에 진학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가?’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또, 간결하고 추상적이지만 그러해서 더 많은 생각을 동반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면접은 ‘나’라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진로나 전공에 있어서 평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생활기록부 내 활동들에 대한 질문은 답변하고, 막상 ‘나’를 설명하는 저러한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장기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적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면접 준비에 있어서 ‘질문을 선별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에서는 본인과 학교생활에 관한 무슨 질문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 떠오르는 질문이라면 거르지 않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 제 선택 기준은 ‘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일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과목 중에 영어가 가장 자신있는 학생이었습니다. 3년 내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관한 학문들을 배워 이를 응용하고 싶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직 실용영어 및 응용언어학에 관심이 갔지만, 타 대학교에 있는 영어영문학과는 영문학과 영미 문화를 같이 전공하기 때문에 해당 커리큘럼이 없는 외대 ELLT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ELLT학과와 과 특성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ELLT학과는 단순한 영어학과가 아닌, 4차 산업에 맞는 AI 관련 응용언어학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자연어처리, 언어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영어데이터분석, 영어텍스트처리기초 등 언어공학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어문 영어 계열에 관심이 있고 이를 컴퓨터·인공지능 분야와 융합한 학문을 배워 IT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ELLT학과 희망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원서 접수 전, 저처럼 지원 학과에 대해 꼭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를 단순히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선배들의 합격 수기들을 꼼꼼히 찾아보면서 해당 수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희망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각 학년마다 희망 진로가 바뀌었지만, 관련 활동 및 탐구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 사례이기 때문에 진로가 바뀐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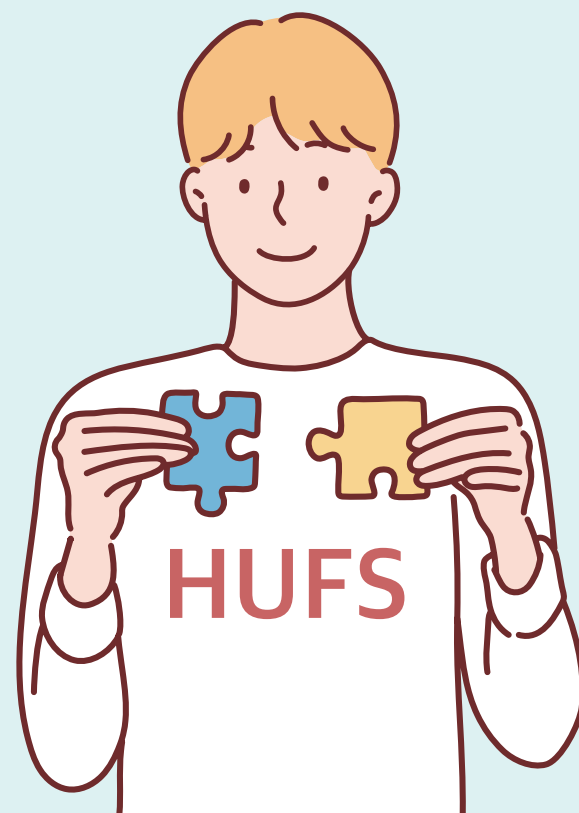
▲: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 수학 성적이 낮아 외대 ELLT학과는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최초 합격을 하여 예상 밖 소식에 기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입시는 변수가 정말 많은 만큼 확실하게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단순히 열심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멈춰서, 본인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앞으로 더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돌아보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점을 계속해나가면,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결과물이 발전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인문과학계열(사학전공) 임다원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 저는 ‘목표가 확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했던 활동들은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이자 토대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역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역사의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역사를 어떻게 나와 연관 지어 진로를 정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찾아본 진로를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전문지식과 갖춰야 할 능력을 조사하면서 스스로가 고교활동에서 지식과 능력들을 많이 갖추고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전문적인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역사에 관련된 저서도 많이 읽고, 탐구 주제를 정해 깊이 공부해보기도 하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교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고교 생활 3년은 확실한 목표를 정해두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했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 저는 학교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하게 인지하고 활동했던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제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목표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다른 전형보다 지원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학과에 지원하고, 학과를 통해 무엇을 학습하고자 하는지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고교생활을 하면서 성적보다 제가 하고 싶은 탐구 활동에 더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제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활동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또 면접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고등학교 재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역사에 관련된 활동들부터 제가 희망하는 진로인 국외문화재환수재단에 들어가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활동까지 가리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또 역사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처럼 보일까 역사 외의 활동 또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 학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까지 보여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모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하나둘씩 기록으로 남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던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으로 지원을 결심한 이유가 평가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적합성,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점이 드러나는 발전가능성 부분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연하게 역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저의 희망 진로인 문화재청 산하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들어가기 위해 학과에 입학하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제가 함양하고 있는 능력들과 학과에

대한 관심도,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학업능력도 중요하지만, 고교생활에서는 탐구해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호기심을 느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생겼으면 고등학교 내에서 스스로가 어디까지 노력해볼 수 있는지, 조사해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탐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야 하고, 또 전공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학과를 선택하고 전공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흔들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부족한 학과로 입학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입학하게 된다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회의감과 공부에 대한 열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 전에 스스로가 학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학업계획 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면접방법 등) 효과를 톡톡히 봤던 나만의 면접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제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에서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여 스스로가 활동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 기록을 참고하여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 활동 이후 느낀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받을 예상 질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논리정연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활동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 면접에서 대답을 할 수 있었고, 또 활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면접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져 실제 면접장에서 자신있게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A: 저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다양한 과목과 역사를 관련시킨 활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역사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에서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양한 부분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역량을 타과목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과목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주제로 하여 픽토그램을 한 것,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활동에서 백절불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표현했습니다. 또, 과학사에서 라부아지에의 업적을 프랑스혁명과 연관 지어 탐구하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가요의 가사를 중세국어로 바꿔보는 등의 활동 등 역사와 다양한 분야를 합쳐 융합적인 역사 인재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업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계열에 대한 관심, 발전가능성과 자기주도성, 창의적인 부분 등 저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 탐구활동이 단발성 탐구가 아닌 새로운 탐구활동과 기존에 했던 탐구를 연계하면서 스스로 지식의 폭을 넓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학업에 대한 지적호기심, 자료 해석 능력, 논리적/종합적 사고능력 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Q: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꼭 준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점과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A: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는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닌 활동들을 시작한 계기와 하면서 배웠던 것들, 또 활동 이후 느낀점을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정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주변에서 접하게 되어 많이 불안해지고, 이것도 준비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면접이 활동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인 만큼 활동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스스로가 했던 활동인 만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면접장에 가서도 긴장하지 않고 씩씩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충실히 면접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연습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A: 학과 선택에 대한 확신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에 불과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역사와 관련 직업을 많이 조사하고 깊게 고민하면서 확실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직업에 대한 지식을 넓혀간 것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생각과 능력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가 나에게 잘 맞는 학과인지, 학과에 가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등 진지한 고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과 및 진로 선택에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학과 선택과 진로 선택에 대해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는 학생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해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언제나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려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응원받은 학생이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교생활에 있어 본인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함이 들지도 모르지만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노력을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꿈이 있음에도 확신이 없다면 또다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주변에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니 용기를 내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매우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높은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쉽게 친해지며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타인들과 함께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에 특유의 리더십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학급 반장, 동아리 부단장 및 학생회 부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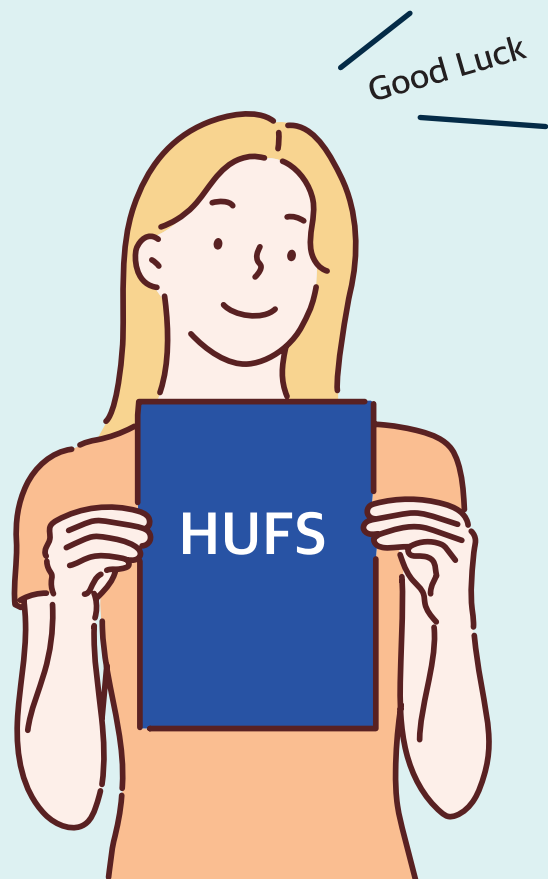
Q: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선,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유난히 극심하였는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경쟁률이 모든 학과 중에서 가장 높게 기록될 정도로 치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류형이 아닌 면접형을 지원한 이유는 면접형이라는 전형이 저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형은 오직 서류로만 학생들을 평가하는 반면에 면접형은 서류평가를 통해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와 더불어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교 생활 동안 다양한 조직을 대표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많았던 저는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진행했던 저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대학교에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면접관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면접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제가 성적이 부족했던 만큼 다른 학생들과는 차별화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고, 학년이 지날수록 활동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내에서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에서 스포츠 분야를 희망했던 저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활용된 전자 호구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전자 호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전직 선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당시 동메달을 거머쥔 전직 태권도 선수에게 직접 인터뷰를 제안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전자 호구에 대한 사실을 포함하여 도쿄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경험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기사에 담아낼 수 있었고, 이것이 인터넷과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만 작성된 기사들과는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교 생활 동안 진행했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대략 60여 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활동의 양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활동들 안에서 연결되는 주제가 있었으며 학년이 지날수록 진로와 관련된 지식의 깊이를 더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생명 과학 시간에 근육에 대해 학습한 후, 장거리 선수와 단거리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근육의 차이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탐구를 통해 얻게 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3학년 때 선수들의 근육을 관찰하며 장, 단거리 선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맞추는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활용하였고, 수영 선수 중 장거리와 단거리를 모두 소화해 내는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근육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이론들을 직접 활용하는 활동들이 학과에 대한 탐구역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들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활동들과 진로와 관련된 학문에 대한 끈질긴 탐구와 활용 능력이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교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대회와 프로젝트들을 참가하면서 저의 고교 생활이 기록된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챙기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이를 즐기고 있었고,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저의 장점을 드러내며 대학에서 저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성적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학생을 정성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였고, 이 전형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고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하고 싶은 일들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등학생이기에 가능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고 포기하는 태도가 자신을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찰이라는 진로를 희망했던 저는 저와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율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매주 카드 뉴스와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지겨움을 느낀 저희는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법 체험 캠프에 참가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던 저희가 학교의 허락을 받고 진천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캠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캠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논리정연하게 글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설득하였고, 활동비를 지원받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짓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고교 생활에서 중요하게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자신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면접방법 등) 효과를 톡톡히 봤던 나만의 면접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우선, 면접을 준비하기에 앞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제가 한 모든 활동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활동마다 어떤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면접을 준비하며 많이 말하고, 여러 사람과 연습해 보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암기하는 시간에 저는 답변을 머리로 생각하며 소리 내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답변을 암기한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어떤 답변을 말할지 생각하고, 이를 입 밖으로 내뱉는 과정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또는 주변 친구들로 한정 짓지 않고, 다른 여러 사람과 면접 연습을 진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님들께서는 초면일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다른 여러 사람들과도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면접 연습을 도와줄 수 있는지 부탁하였고, 이렇게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A: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보는 역량들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크고 작은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리더 역할을 맡으며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과목에서 탐구역량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시험에서 받는 성적은 낮더라도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수학적 원리와 지식을 저의 진로와 연관 지어 탐구 활동을 진행하거나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이며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특정 과목의 성적이 부족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탐구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에 달하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연결되는 주제를 찾아 계열과 관련된 지식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계열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창의성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며 저만의 2차 가공물을 만들었다는 점이 저만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알게 된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멤버십 제도를 직접 국내 한 프로 야구 구단에 적용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제 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 활동을 위해 직접 경제 특강을 듣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경제 원리 및 계산법을 학습하여 구단을 멤버십 제도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소비자의 손익 분기점 등을 산출하였습니다. 결론이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계열에 대한 저의 열정과 노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Q: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꼭 준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점과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A: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들께서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을 듣는 것뿐 아니라 학생이 답변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시선 처리와 자신감이 묻어난 말투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성격과도 긴밀하게 작용하여 하루아침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얻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정도의 많은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 선생님과 면접 연습을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졌던 꼬리 질문을 통해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들통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 또한 저의 진실성과 솔직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A: 실제로 저는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많은 시간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찰이라는 꿈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경찰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겨울 방학 동안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보다 스포츠 경기를 보았을 때, 가장 신이 났고 체육 시간을 오매불망 기다리지만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흥미는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학년 동안 진행된 활동들은 경찰이라는 직업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진로를 바꾸지 못하였고, 제가 좋아하는 것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현실에 마주해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과감히 진로를 스포츠 산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니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되었으며 완성도는 더 높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거의 저와 같이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진정 본인이 좋아하는 것, 할 때 행복한 것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상황에서 도전보다는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누구도 결말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상항이라는 어쩌면 도박을 걸었습니다. 지원한 대학에 비해 성적이 낮았으며 성적 추이 또한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있었으며 포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입시 성공이 모두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희망하지 않았던 학과, 진로를 선택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포기가 무엇인지 일찍 깨닫게 하는 학생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 합격한 이유에 운이 작용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고교 시절 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활동과 노력이 맞물려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을 한계를 두지 말고, 부족한 점을 무엇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학의 인재상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고찰하고 노력한다면 입시 성공의 주인공은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교 생활을 즐기며 보냈으면 좋겠다고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는 친구, 온갖 짜증을 내면서 툴툴대는 친구. 하지만 많은 친구들 중에서 입시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친구는 즐기는 친구였습니다. 무언가를 즐겨야만 후에 어떤 결과를 마주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어쩌면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교생활을 즐긴다면 미래의 후배들이 마주할 길이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융합인재학부 박채린

Q: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저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는 따라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1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저는 공부에는 크게 관심 없던, 굳이 따지자면 10명 중 4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잡고 정말 열심히 3년 동안 학교생활에 올인했습니다.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동아리 활동, 설명회, 강연, 봉사 등 학교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다짐했던 것은 '절대 후회하지 말자. 결과가 어떻든 후회만 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짐했던 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했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성장했습니다. 여러 교과목과 학교 활동을 통해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라는 생각과 함께 저만의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며 그에 맞는 진로와 꿈을 계획했다는 가장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국제 정세에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때의 관심과 흥미가 지금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에 다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성적이나 학교 활동에서 부족하지 않게 내용을 마련해왔지만 저만의 스토리를 표현하기에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는 글로벌 융합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에 맞는 내용을 면접을 통해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면접이 부담스럽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이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걱정되어 서류형과 면접형을 끝까지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본인이 더 자신 있는 전형으로 가는 게 맞다. 어떤 부분으로 더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자신을 표현하기에 어떤 전형이 더 맞지만 생각해라'였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저는 면접에 자신이 있었고, 제게 더 확실한 방법은 면접형이라는 생각이 들어 면접형으로 지원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학생부종합전형은 그야말로 저의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학교생활에 성실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한 학문적 흥미와 관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적 내용에 신경을 썼습니다. 단순히 성적, 동아리, 학교 활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과목에서 어떻게 내 관심사를 표현할까?'를 항상 생각했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이 과목에서는 이 내용으로 한 번 보고서를 제출해 봐야지'라는 내용으로 1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되도록 포기하는 분야가 없게 했고, 공부하기도 바쁘다는 핑계로 동아리 활동을 소홀히 한다거나 학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놓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저의 성실도나 노력의 전반성을 평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눈에 띄게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채웠지만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함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한 성적도 꾸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지만, 그보다도 저의 관심사를 3년에 걸쳐 꾸준히 밝혀 온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의 주제를 3년 동안 꾸준히 탐구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난민에 관심이 생겨 '난민의 발생 지역과 그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면 2학년 때는 '국제기구별 난민 정책과 그 현실'에 대해, 3학년 때는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매체의 역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뻗어 나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과목뿐만 아니라 독서나 동아리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교과목 간, 학교 여러 활동 간 연결 지으며 확장해 나간 저의 방식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언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을 염두하고 준비했나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처음부터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와 가장 잘 맞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저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종합전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도 면접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저의 강점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Q: 고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A: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성적은 노력에 비례해 쑥 오르지 않고,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있으면 다음 성장이 있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구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 그 구간에서 자신에게 성장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고 멈춘다면 다음 성장을 얻기는 힘듭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정말 속상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자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 시련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면접방법 등) 효과를 톡톡히 봤던 나만의 면접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면접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모의 면접을 통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준비해 모의면접을 하면 어떤 활동들을 했었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도 조금은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보면서 거의 긴장하지 않았는데 그 바탕에 모의면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면접을 실전처럼, 면접을 연습처럼 하다 보니 많은 긴장을 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충분히 저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또, 모의면접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행동이나 언어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보완하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야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의면접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답한 내용에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 대답에 대한 꼬리 질문도 생각해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A: 탐구역량,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중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계열적합성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분야가 뚜렷했고, 3년 동안 발전해 온 과정을 계열 관련 교과목에 표현하고 싶어 열심히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웠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였기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 분야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탐구했는지 표현하면서 저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강점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탐구역량과 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어우러집니다. 제가 관심 있던 분야와 관련한 교과목의 성적이 상승했고, 그 분야에 관련한 활동을 채워 계열적합성을 보여주었고, 꾸준히 관심도를 드러내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꼭 준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점과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A: 면접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말 꼼꼼히 보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평가자인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는 3년 동안의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모든 내용은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모의면접도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말 꼼꼼히 보면서 내가 했던 학교 활동, 내가 읽은 책, '나'를 표현한 선생님들의 평가 등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나만의 가치관과 내가 어필하고픈 나의 모습을 생각해간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피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면접 후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수만회 같은 카페나 유튜브, 블로그를 보면 면접 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면접에 참고하는데 유용하지만 너무 몰입하게 되면 도리어 실제로 면접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내용이나 그 분위기는 매년 달라지고 이를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접에 관련한 수기는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과선택 혹은 진로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현재 학과선택과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A: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범죄심리학자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해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니 제가 꾸고 있던 꿈은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여러 교과목 중 제가 특히 더 재밌어했던 부분을 추려 꼽아보니 국제적 분야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지금은 좋아하는 것을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학교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저도 제 진로를 찾은 후 공부도 재밌어지고 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진로를 쉽게 찾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꿈이 많은 것도, 혹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나가다 보면 그 관심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해주세요. 또, 고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예쁜 추억들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시간들도 같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급식을 먹고, 체육 대회를 하고, 수련회를 가던 것들은 재밌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했던 여러 학교 활동들, 그리고 공부까지 정말 심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은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입니다. '열심히'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간 '후회하지 말자.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면접 Q&A



실수로 면접장에 교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면접을 응시할 수 없나요?

응시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위해 수험생은 자신의 개인정보(고교명, 이름 등)를 노출시킬 수 있는 옷을 입으면 안됩니다. 가끔 교복을 입고 오는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블라인드 면접에 위배되는 복장을 입고 오는 수험생들을 위해 면접대기실에 별도의 면접복(ex. 학위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복과 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왔다면 그 옷 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준비한 면접복을 입고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평가,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되나요?

블라인드 면접이란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 및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배제하고 오직 수험생의 역량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지원동기를 답변할 때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본인의 답변에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 답변을 준비하며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모두 코로나로 인해 학교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면접 답변 시 부족한 활동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험에 대한 깊이와 관심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표현력이 부족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물어보나요?

면접에서는 유창한 말솜씨보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질문의 핵심 내용을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면접 평가의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서류와 일치하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 질문은 '구체적으로 ~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라',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을 하는 과정 중 본인이 알게 된 것은?' 등의 질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또한 면접에서 지원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접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노력한 바를 평가받는 자리이다보니,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나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준비한 바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면접장을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나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식의 답변을 하거나 지나치게 단답형인 대답도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려우므로, 면접관은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유 없이 다리를 많이 떨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려우므로, 허리를 곧게 펴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기 바랍니다.



면접관(입학사정관, 교수)이 여러 명일 때, 학생 평가가 서로 다를 경우 점수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본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 사람의 평가가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도록 다수의 평가자(2~3인)가 면접에 참여합니다. 또한, 개별 평가자의 독립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자 간의 견해가 일정 수준 이상 차이를 보이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면접관의 주관으로 지원 학생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면접으로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을 뒤집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작년) 기준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을 뒤집은 비율이 약 30~35%였으며, 실제로 작년에 융합인재학부에서 서류평가 성적이 45등이었던 학생이 면접 성적이 높아 최초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면접으로 뒤집은 사례가 있으니 면접을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과 면접 시간이 겹칩니다. 면접 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되는 면접 시간과 장소에 맞게 면접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면접 Final Check

Check 1 _ 면접 시간과 장소는 확인하셨나요?

-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SW인재전형은 모두 동일하게 서울캠퍼스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면접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구분	면접 일시	장소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서울, 글로벌] 2022. 10. 30.(일) 09:00~ / 12:30~ / 15:30~	서울캠퍼스 지정장소
학생부종합전형 (SW인재)	[글로벌] 2022. 10. 30.(일) 09:00~	

Check 2 _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로 예상 질문을 만드는 연습!

- 한국외국어대학교 면접은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활동보고서)에 대해 물어봅니다. 따라서 면접 질문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점!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로 예상 면접 질문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Check 3 _ 답변을 만들어 볼 시간!

- 면접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활동보고서)의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경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은 면접 질문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길 바랄까요? 그 답은 바로! ‘경험에 대한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한 ‘확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했던 활동, 작성된 사항에 대한 동기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Check 4 _ 바람직한 면접태도란 무엇일까요?

-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목소리는 작아지고 면접관의 시선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되기 쉽습니다. 면접관은 뛰어난 말솜씨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수험생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견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밝고 큰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답변, 공손한 태도는 면접 점수를 플러스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Check 5 _ 연습을 실전처럼!

- 면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과 함께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모의면접을 해보고, 긴장감을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접의 전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함께 보며 피드백을 해보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닌 만큼 연습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Check 6 _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보세요!

-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면접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가이드북이나 본교에서 주최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한국외국어대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 및 SNS 등을 통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은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3. HUFS 대학생할

1. 꿈을 향한 계속된 도전, 이중전공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국제통상학과 김혜은

Q: 본인의 본전공은 무엇이며, 본전공을 지원한 이유를 고등학교 생활과 연관지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수하는 이중전공은 무엇이며, 이중전공으로 해당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 본전공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입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를 지원한 이유는 고등학교 3년동안 ‘언어’라는 큰 키워드에 관한 관심을 시작으로 3학년 때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및 제3국에 대한 호기심도 키워나갔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언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나만의 무기로 만드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중전공은 국제통상학과입니다. 또한 저는 입학 초기부터 터키어를 활용해 중동전문 기자, 넓게는 국제부 기자라는 ‘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국제 현안과 경제, 무역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자 국제통상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기자에게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공부도 필요하고 이러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제통상학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A: 우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서 갖춰야할 경제적 지식이나 영어와 같은 기본 소양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영어로 경제와 국제법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통상학과, 국제학부 등을 염두하고 있었고, 만일에 대비해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상경계열 교육 경험이 취업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제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국제통상학과에 더 마음이 기운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수강해본 결과, 국제통상학과에서는 한국어 수업이더라도 영어 원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초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거의 수능 문제에 준하는 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복습만 철저히 해두면 그리 어려운 공부는 아닐 것이라 봅니다.

Q: 본인의 본전공과 이중전공의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터키어를 국제 무대에서 사용하며 세계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지식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 방면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제통상학과 터키어학을 함께 배우면 졸업 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되어도, 기사를 작성할 때 대학에서 공부한 터키의 문화와 사회, 정치 그리고 국제통상학과에서 배운 여러 경제 관련 지식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Q: 이중전공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영어가 기본인 세상에서, 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대학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을 유지 및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현안과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생의 희망진로는 무엇인가요? 이중전공이 학생의 희망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현재 사회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하면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 그리고 세계 이슈에도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여러 나라의 무역 현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 외에도 무역업이나 무역 관련 공기업 등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를 대비할 때 국제통상 전공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엮어낼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중전공을 이수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이중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우선 국제통상학과는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연습과 복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 파트의 경우 수학적 센스도 갖추면 더욱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전공과 본전공인 언어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학과 선택 전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진입 이후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처음에는 영어로 이루어지는 경제 수업이나 국제법 수업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통상학과는 코로나 이후로 기존 ‘선발 시험+학점’ 시스템이 아니라 100% 학점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발시험이 언제 부활할지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평소 경제 공부나 수학 미적분 공부를 틈틈이 해두면 진입을 해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제통상학과를 생각해두고 입학한 경우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 지금이라도 국제통상학과 이중전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입학 후 1학년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비재무적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비재무적인 가치들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까지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 E(환경)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며, 많은 기업들이 2020년도부터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Q: 이중전공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이중전공을 통해 ESG를 전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관점과 지식들을 배우나가고 싶습니다. ESG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동시에 상호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SG가 비재무적인 가치로서 아직까지 사회공헌적(CSR)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이 가야 하는 방향성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부 형식의 일방적인 CSR이 아닌 기업과 대상자가 상생하는 비즈니스로 향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는 만큼, 바람직한 ESG 모델을 구현시키는데 필요한 경영 지식 기반을 잘 다지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숨겨진 니즈를 파악해 아이디어로 창출하는 ESG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Q: 학생의 희망진로는 무엇인가요? 이중전공이 학생의 희망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적정기술 정신을 널리 퍼트리고,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ESG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전공인 국제금융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인 인액터스의 Meal:리언팀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말키트 판매 플랫폼을 기획해 운영했고, 또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에서 함께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운영에 이론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인액터스 Early Stage Competition에 선정되어, 부흥하는 말키트 트렌드에 발맞춰 시장경제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뉴노멀 대응방안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현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창출되는 점에 가슴이 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중전공을 통해 넓혀간 저의 배움의 폭과 깊이가 다양한 경험에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저의 진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ESG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지식을 가진 차세대 ESG 전문가의 꿈에 한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문성과 인성에 기반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이중전공을 이수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이중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중전공을 이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본전공과 같은 이공계열이 아닌, 상경계열을 선택한 만큼 수업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원활히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업시간 전에는 기본적인 사전 개념들을 인터넷과 유튜브,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습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수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초반에는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학과에 마련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 차근차근 기본부터 배워 나가다보면 충분히 이중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원하는 이중전공이 있다면, 해당 이중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들(영어성적, 학점 등)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해당 이중전공의 졸업요건(자격증, 졸업시험, 졸업논문 등)을 꼭 확인해 스스로 본전공의 졸업요건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경학과/국제금융학과 홍혜민

Q: 본인의 본전공은 무엇이며, 본전공을 지원한 이유를 고등학교 생활과 연관지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수하는 이중전공은 무엇이며, 이중전공으로 해당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의 본전공은 환경학과입니다. 학창시절 교내 활동으로 바이오스피어2를 모방한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탄소순환체계를 인공적으로 갖추는 것은 어렵기에 자연생태계가 대체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동안 최적의 경쟁력을 검증받은 자연시스템은 지구를 보존하면서 인류의 지속번영을 보장할 좋은 산업모델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인류의 환경위기를 해결할 기술방향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청색기술과 환경공학을 융합하여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을 모색해야겠다고 결심하여 ‘청색기술 전문 환경공학기술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환경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수하고 있는 이중전공은 ‘국제금융학과’입니다.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다양한 전공들 중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꿈과 관련되는 것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하는 전공만을 선택지에 두었습니다. 그 중 혹시나 진로의 방향성이 바뀌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국제금융학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Q: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A: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본 전공과의 시너지 효과와 범용성입니다. 선택할 당시 확실한 진로가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나 계열과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1학년을 마치자마자 이중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지금 꿈꾸고 있는 직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싶은 진로나 배워보고 싶은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범용성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 경영과 금융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와도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는 국제금융학과에서 배우는 경영 분야를 저의 진로인 ESG(지속가능 경영)와 연결지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Q: 본인의 본전공과 이중전공의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환경학과와 국제금융학과 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의 희망 진로 분야인 ESG(지속가능 경영)라는 개념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Q: 본인의 본전공은 무엇이며, 본전공을 지원한 이유를 고등학교 생활과 연관지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수하는 이중전공은 무엇이며, 이중전공으로 해당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의 본전공은 LT(Language&Trade)입니다. 언어와 통상 분야의 지식을 모두 배우는 학부로, 경제와 경영, 국제법과 무역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IGE(소비자정책전문가회의)의 의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LT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LT학부는 '소수 정예 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관리'를 통해 통상 분야의 고위 공무원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국제 기구 진출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도 제가 LT학부를 지원하는 데에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LT학부에서는 6학기 동안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던 저는 중국과의 외교, 통상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LT학부는 거의 대부분의 전공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제 무대로의 진출에 필수적인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LT학부를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중전공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광고PR브랜딩 전공입니다. 제가 광고PR브랜딩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해하려면 미디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하기 때문에 광고PR브랜딩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글쓰기, 미디어연구방법론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실무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는 광고PR브랜딩 전공과 방송영상뉴미디어 전공, 언론정보전공으로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A: 이중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곳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행동과 정책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본인의 본전공과 이중전공의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LT학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광고PR브랜딩 전공은 경영, 경제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학부 모두 전문적인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LT학부에서는 경제학원론 등을 통해 개념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고, 광고PR브랜딩 전공에서는 경영학에서 정의하는 광고나 PR, 그리고 마케팅과 비슷한 개념의 브랜딩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두 학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중전공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우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수업을 들으면서도 학습의 목표로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그 매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석하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PR브랜딩 전공을 배우면서 광고와 PR, 브랜딩의 방법을 배우고 실무적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서 평가를 하곤 했는데, 광고와 PR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한 이후에는 더 전문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실무적 역량을 키워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Q: 학생의 희망진로는 무엇인가요? 이중전공이 학생의 희망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UNCTAD 산하 IGE의 의장이 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 또는 마케터 관련 직무로 취업하는 것, 또 청년사업가 이렇게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케터나 광고홍보 관련 직무로의 취업을 진로로 정하게 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광고PR브랜딩 전공에서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미디어연구방법론 수업을 들으면서, 미디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 설문조사와 내용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E-stat으로 통계 및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는 실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습수업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웠던 다양한 내용들이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무로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사업가라는 저의 다른 꿈에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의 수업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IR피칭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저의 이중전공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Q: 이중전공을 이수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이중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먼저 어려웠던 점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팀플 수업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외향형이기 때문에 팀플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었지만, 팀플 수업 형태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힘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중전공을 이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배경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전공인 LT학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의 공부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자체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디어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배경지식이 전혀 없던 저에게는 외워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전공생들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 학사제도

가. 이중전공

신청기간 및 방법	1학년 과정 종료 전
이수요건	전공 54학점 + 이중전공 42학점
선발인원	정원의 150%
기타사항	- 캠퍼스 구분없이 이중전공 가능함 - LD 전공/LT 전공 이중전공 가능함 - 이중전공은 2학년부터 시작함 - 비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소속 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모집단위에 따라 전공 이수학점은 다를 수 있음

나. 부전공

신청기간	1학년 과정 종료 전
이수요건	전공 54학점 + 부전공 21학점
선발인원	인원 무제한

다. 전공심화(단일전공)

신청기간	신청 필요 없음 (1학년 과정 종료전 이중전공, 부전공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공심화(단일전공) 자동 배정)
이수요건	전공 70학점
기타사항	- 전공심화(단일전공)에 부전공(21학점) 가능 - 모집단위에 따라 전공 이수학점은 다를 수 있음

라. 전과

신청기간	1학년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신청자격	2학년 진급대상자로서 3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3.5 이상인 재학생
선발인원	전출인원 : 원적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 전입인원 : 전과지원학과(부) 입학정원의 5% 이내
선발기준	- 캠퍼스 구분없이 전과 가능함 - 지원학과에서 선발기준을 정함(학업성적 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취업현황

가. 국가전략언어학과 취업현황

순위	캠퍼스	학과 및 전공	취업률	주요 취업처
1	서울	포르투갈어과	76.7	LG전자, SK네트웍스, KOTRA, 동국제강, 성우하이텍, 신한은행, 아이엠씨게임즈, 카카오브레인, 하나마린, 현대제철, 효형출판 등
2	글로벌	폴란드어과	75.1	민앤지, LG Energy Solution Wroclaw Sp. z.o.o., S&I Corp, JINSUNG IND POLAND sp. z.o.o.,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원큐브마케팅, 현대카드, 퀴네앤드나겔, 스타트업컨텐츠, 우아한형제들 등
3	글로벌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74.1	위메프, 쿠팡이츠, 약진통상, JW중외제약, 티맥소프트, 엠케이브이, 한국에자이, 현대건설기계, 포컴퍼니, IBK기업은행, 법무법인 광장, 삼양, 디스티팩토리, 카길애그리퓨리나, 사조그룹 등
4	서울	인도어과	73.4	보이스루, KB국민은행, 공무원(세무직), 뉴스핌, 도회코리아, 벤처캐피탈엑셀러이터, 슈피겐코리아, 스피드라인, 이투데이, 제니스트래블, 조선일보사, 테슬라코리아, 피더블유씨관세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	서울	아랍어과	71.4	장금마리타임, CJ ENM, LG상사, LG전자, LG판토스, SK건설, UN기구, withlocals, 걸프에어, 나딕게임즈, 세아상역, 예술의전당, 종근당, 테슬라코리아, 팔도,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화에너지, 현대그린푸드, 현대자동차, 현대중합금속 등
6	서울	베트남어과	71.4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림, 법무법인KCL, 서울시지방직공무원, 세아상역, 신한카드, 아바맥스아시아, 우리은행, 한국맥도날드, 한국투자증권 등
7	서울	노어과	70.3	DB손해보험, GS리테일, LG화학, 넥센타이어, 노무법인 더원, 법무법인 여는, 삼일회계법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일렉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오일뱅크 등
8	서울	몽골어과	70.2	ABI OB맥주, BGF리테일, Etihad Airways, IBK기업은행, 법무법인 광장, 신한은행, 에델만코리아 등
9	글로벌	러시아학과	70.1	메이크이지, 신일제약, 화성축매, 메디씨에이, KOTRA, 롯데제과, 대명소노그룹, 순천대학교, NH트자증권, IBK기업은행, 젤라도랩, 티엔에스에듀, EVAR 등
10	서울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9.2	CJ대한통운, Korindo Group, LG에너지솔루션, 공무원(지자체), 국민은행, 대한민국 육군, 보령제약, 신세계푸드, 아토머스 , 약진통상, 우리은행, 장금상선, 하나은행 등

나. 자연계열 취업현황

순위	캠퍼스	학과 및 전공	취업률	주요 취업처
1	글로벌	정보통신공학과	80.9	오피니언라이브, SK인포텍, 메타넷글로벌, 팔로젠, 클로커스, 광주과학기술원, NS쇼핑, 한화시스템ICT, 마이다스인, 한드림넷, 라이나생명, LG유플러스, 팩터나인, 롯데정보통신, 오픈베이스, 넷마블, 클로컬라이즈, DGETK, 현대아이티엔이, SK C&C 등
2	글로벌	수학과	80.8	땡굴, ABL생명, 한샘, 한국종합기술, 엑스퍼넷 등
3	글로벌	컴퓨터공학과	7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비즈니스아츠, SK인포텍, 대우모바일, 와이즈덴, 한국알테어, 삼일회계법인, 앤비웨어, 세종텔레콤, 오토콘시스템, 전자기술연구원, CMT정보통신, 데브짓수, 스마트잭, GS네오텍, 네디트, 엔카닷컴, 비프로컴퍼니, 카카오, 비프로컴퓨터, 탐스코퍼레이션 등
4	글로벌	통계학과	71.0	삼성자산운용, 하나티아이, 을지대학교병원, 제이비우리캐피탈, 데이터애널리틱스랩,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신탁운용, 비트컴퓨터, 동화약품, 브이엠자산운용, 세연이엔지, NH농협은행, YG엔터테인먼트 등
5	글로벌	생명공학과	66.7	바이넥스, NH농협, 현대엘리베이터, 쟈백스앤카엘 등
6	글로벌	전자공학과	65.3	에프알텍, 삼성전자, 엠엔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와이피피, SK하이닉스, 위너스오토메이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도요일렉트론코리아, LG디스플레이, 이엠텍, 대영에스엔티, 삼성물산, ATRobot, 프리미어모터스, 한솔테크닉스, 삼성전자, 지티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